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

미디어전략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2011-02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

책임 연구 | 김경환(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공동 연구 | 최세경(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박한철(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연구 보조 | 연보영(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

김혜경(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

발행인 | 이성준

편집인 | 선상신

발행일 | 2011년 10월 31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001-7744 팩스 (02)2001-7740

www.kpf.or.kr

이 보고서는 201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비매품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

책임 연구 | 김경환(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공동 연구 | 최세경(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박한철(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연구 보조 | 연보영(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
김혜경(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

본문 목차

I. 서론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6
3. 연구방법과 보고서 구성	17
II. 멀티 플랫폼 환경과 NIE 변화	19
1. NIE의 개념과 목적	19
2. 멀티 플랫폼 환경과 NIE	21
1) 멀티 플랫폼 환경과 특성	21
2)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10대의 미디어 이용	23
3) 10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NIE	30
3.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와 디지털 NIE 역할	34
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영역	34
2) 디지털 NIE 역할	36
III. NIE 강사 자격 제도화 필요성 및 배경	38
1. NIE 강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38
1) 국내 자격 관련 제도 운영 현황	38
2) NIE 강사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	41
IV. NIE 강사 교육 현황	44
1. 언론사 및 관련단체	44
1) 한국언론진흥재단	44
2) 경향신문 NIE 통합논술(정, 준) 지도사	44

3) 조선일보 NIE지도사	45
4) 중앙일보 NIE논술지도사	47
5) 한국전문기자협회 NIE전문지도사	49
2. 기타교육기관	50
1) 한국 NIE협회 NIE지도사	50
2) 동작구여성인력개발센터 NIE지도사	51
3. 일본의 NIE강사 육성 현황	52

V.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55

1. 심층인터뷰개요	55
2. NIE 강사 자격 현황과 문제점	56
1) 기존 민간 NIE 자격증 제도 평가	56
2) 국가공인 NIE강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58
3. NIE강사의 자격역량	61
1) 학력	61
2) 적정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62
3) 교육훈련기간 및 견습기간	62
4) 경력조건	64
5) NIE강사로서 요구되는 적성이나 능력	65
4. NIE강사 자격제도화를 위한 교육과정	67
1) NIE 강사양성과정의 목표	67
2) NIE 강사양성과정의 커리큘럼	68
3) NIE 강사양성과정의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	72
5. NIE 강사 자격 검정체계 및 사후관리	74
1) 검정주체	74
2) 응시자격	76
3) 평가과목과 직무능력	81
4) 평가체계	83
5) 전문 교육프로그램	85
6) 사회적 보상과 사후관리	89
6.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요인	92
1) NIE 강사 육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92
2) NIE 강사의 능력 요건	94
3) 국가자격 인증제로서 최소한의 요건	96
4) 민간자격 검정체계	99

VI. 결론 :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 방안	102
1. NIE강사 직무분석	102
1) NIE강사의 직무분석	102
2) NIE강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103
2. NIE강사 교육프로그램 및 검정체계	104
1) NIE강사 교육 프로그램	104
2) NIE 강사 검정체계 도입 방안	106
 참고문헌	 114
 부록1(전문가설문지)	 123

표 목차

<표1> TV 프로그램 관련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	26
<표2> 교차 플랫폼 시청 시간 월간 소비증가 추이	27
<표3>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장소	28
<표4> TV 시청 중에 다중미디어(멀티태스킹) 이용 활동	30
<표5> EAVI의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	36
<표6>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법	39
<표7> 우리나라 자격구분 및 현황	40
<표8> 국내 교육서비스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분야	40
<표9> 조선일보 NIE 지도사 양성과정 개요	46
<표10> 조선일보 NIE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47
<표11> 중앙일보 NIE 논술지도사 과정 교육내용	48
<표12> 한국 NIE협회 지도사 과정 교육내용	51
<표13> 동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 NIE지도사 과정 교육내용	52
<표14> NIE자격증 발급기관 현황	57
<표15> 기존 민간 NIE자격증 제도에 대한 평가	58
<표16> 국가공인 NIE강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61
<표17> NIE강사양성과정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할 가장 적합한 과목	69
<표18> NIE강사양성과정 커리큘럼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과목이나 내용	71
<표19> NIE 관련 분야의 교육과 교·강사의 현황	93
<표20> 국가 공인 민간자격검정 체계의 도입 단계와 조건	98
<표21> NIE강사 직무분석	103
<표22> NIE강사 직무조건	104
<표23> NIE강사 교육프로그램 체계	105
<표24> NIE강사 교육프로그램	106
<표25> 미디어 및 교육 관련학과 예시	108
<표26> 검정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면제 조건	111

그림 목차

<그림 1> 멀티 플랫폼/통합 플랫폼 환경의 개념도	21
<그림 2> 미국 10대의 전형적인 미디어 소비	24
<그림 3> 영국 이용자의 세대별 미디어 이용시간 비교	24
<그림 4> 커넥티드TV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콘텐츠 소비 활동	26
<그림 5> 전국 또는 국제 뉴스를 의존하는 미디어의 비중	31
<그림 6> 미국 성인의 휴대폰과 태블릿 보유 현황과 뉴스 이용	32
<그림 7> 미디어별 주요 속성에 대한 평가 비교	33

요 약 문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통합미디어 이용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미디어에 대한 활용과 이해가 사회적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규적인 교육체계 내에서 NIE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NIE가 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와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법'이라는 협소한 차원을 넘어,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교육으로서 역할 확장을 목표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NIE 교육인력의 양성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을 시도했다.

NIE 강사육성 시스템의 제도화는 NIE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로서의 전문성과 자격을 검정하는 제도로써 해당 자격의 취득자가 NIE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공인해줄 수 있고, 자격 검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정을 위한 교육과정, 교재개발, 시험 과정과 절차, 자격 유지 및 관리 기준이 수반되기 때문에 NIE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NIE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NIE 강사(가칭) 자격검정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서론, 멀티 플랫폼 환경과 NIE 변화, NIE 강사 자격 제도화 필요성 및 배경,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결론: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방안으로 구성됐다. 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은 연구배경 및 목적과 연구방법을 기술했다.

제2장 멀티 플랫폼 환경과 NIE변화에서는 NIE의 개념과 의미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어떻게 결합해 변화하고 있는지 미디어 기술적 측면과 미디어 이용환경적 측면에서 조명했다. 멀티 플랫폼 환경의 대두되면서 미디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해도 자체가 이용능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나 전문교육인력의 양성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도 신문이

갖고 있는 미디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었다. 멀티 플랫폼 환경의 조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졌지만 추가적인 지식과 사안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추구 행동은 인쇄미디어 특히 신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3장의 NIE 강사 자격제도화 필요성 및 배경에서는 NIE 강사 육성 시스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행 국내 자격관련법의 내용과 자격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이 갖는 자격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NIE 전문교육인력 양성시스템이 갖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NIE 강사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NIE 전문교육인력은 언론사와 언론관련기관이 발급하는 NIE전문강사자격증과 기타민간단체가 발급하는 논술지도를 위한 NIE지도사 자격증으로 나뉘고 있다. 언론관련기관들이 발급하는 NIE강사자격증은 신문의 보급 활성화에 주안점이 놓여 있는 반면, 기타민간단체가 주도하는 NIE 강사 및 지도사 자격증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이 놓여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발급하는 NIE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불구하고 정작 자격증 취득후에는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5장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NIE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교육프로그램과 운영방법,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요인, 자격조건, 능력과 직무수행 조건, 사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한 뒤, NIE 관련 연구자 및 시민단체, 언론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인터뷰를 실시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은 NIE 강사 육성의 제도화가 NIE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민간자격증의 남발에 따른 NIE 전문 교육인력의 공신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일부지만 정부주도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낮았던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NIE 강사의 자격역량은 교과부의 교사자격증 부여에 상응하는 학력기준과 훈련기관 역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언론기관, 교육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현직교사와 일반인, 언론종사자 등을 구분하여 교육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간 이외에도 실습 등과 같은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더욱 중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경력조건에 관해서는 교육경력과 언론사 종사 경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NIE 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내용은 신문의 교과관련 학습활용 능력과 미디어리터러시, 기타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교육내용들이 제시되었으며, 강사자격증 부여는 공인된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과 응시자격 역시 교사 및 언론종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격증 부여를 위한 평가체계와 평가방법은 기존의 국가자격제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제6장은 결론으로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에 필요한 직무분석과 교육프로그램, 검정체계 및 검정주체에 관한 안을 제시했다. 결론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대상으로 대학이상에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증한 언론 및 유관기관 등에서 교육내용은 미디어일반, 신문, 교육학, 미디어교육, NIE이해 등과 같은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 및 언론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목 이수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자격검정주체로는 국가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설치근거가 명확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방송통신융합 환경으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이 소비하는 미디어 시간은 폭증하고 있다. 한 미디어 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주당 미디어 소비시간이 2000년에 60시간이던 것이 2020년에는 90시간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Future Network, 2009). 1주일이 168시간이고 이 중 수면시간이 약 56시간으로 가정할 때 미국인은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디어에서 정보를 소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더 많은 미디어를 압축하여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에 의존하는 정도는 10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세대라 할 수 있는 현재의 10대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손쉽게 접하고 익히며 자랐다. 이 10대들은 다수의 디지털 미디어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성장해 오면서 미디어에 자신의 삶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송요셉과 그 동료들(2009)은 10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바깥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로 미디어를 인식하며, 이로 인하여 부모와 대화 단절 또는 미디어에 대한 중독의 성향까지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만큼 미디어 이용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0대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행동은 사회적, 교육적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어떻게 행동하고 습관을 형성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가 인간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때 이들 10대가 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존재한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미디어 이용을 가르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동시에 10대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NIE는 이러한 관심의 대표적인 결과이다. 신문이 주류 미디어로서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이성적이며 교육적인 신문의 성격을 잘 활용하여 다미디어 다채널 환경에서 신문이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핵심 미디어로 자리매김시키려는 활동인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 등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이러한 미디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멀티 플랫폼 이용 환경은 NIE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증가는 좀 더 많고 다양한 신문기사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NIE이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하는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멀티 플랫폼 이용 환경에서 신문은 인터넷을 통해 ‘재매개(remediation)’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의한 뉴스, 지식 등 정보의 전파, 공유 등이 활성화되면서 신문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NIE가 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와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법’이라는 협소한 차원을 넘어,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교육으로서 NIE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왜냐하면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NIE를 수행하려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뉴스와 지식을 찾으려면, 여러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NIE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적응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때,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신문의 독자가 이에 부합하는 뉴스와 지식을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이용자 참여 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NIE 환경의 변화는 NIE의 효과를 제고하고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고 있다.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NIE가 추구하는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하며, NIE에 적용되는 신문의 대상을 인터넷신문, 포털 뉴스 등까지 확대시키면서 ‘활용’에 대한 논의를 능동적 이용자의 통제권까지 고려하여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로운 NIE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그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NIE가 다루어야 하는 범위가 확장되고 그것이 차지하는 사회적 의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NIE를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 인력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NIE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NIE 전문 교육과정의 정착되지 않았고 전문 강사 육성시스템을 확보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정기적, 비정기적 연수를 통해 어느 정도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3일 또는 5일 수준의 단기 과정에 불과한 상황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 연수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NIE 교육 실시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으며 이용자 통제권을 고려한 새로운 NIE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NIE, 미디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이외에서 NIE,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여러 영역이 존재하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상당한 수의 NIE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강사가 존재하지만 그 전문성,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이 NIE 전문 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며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까지 고려한 NIE 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NIE 전문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NIE 전문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차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첫째, 기존 교사에게 NIE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며 둘째, NIE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NIE 전문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증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NIE 전문 강사 육성시스템의 부재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으로 NIE 실천 방식이 변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이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으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NIE의 목표와 내용이 변화해야

함에 불구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NIE 전문 교육과정과 강사 육성체제로 인하여 NIE 교육이 학생들,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NIE 전문 미디어교육사 또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NIE 전문 강사 자격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목적

NIE 전문 강사 자격검증은 NIE를 실천할 수 있는 교사로서 전문성과 자격을 검정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 자격검정 제도는 현직 교사가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민간 영역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적합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자격 검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정을 위한 교육과정, 교재개발, 시험 과정과 절차, 자격 유지 및 관리 기준이 수반되기 때문에 NIE 전문 교과과정을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IE 전문 강사에 대한 직무를 명확히 하고 그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직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NIE 전문 강사 자격검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NIE를 활성화하고 NIE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NIE 전문 강사 자격검정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연구목적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설정했다. 첫째, 멀티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 NIE가 지향해야 할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디지털 NIE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답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NIE 전문인력의 양성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NIE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해외 사례를 검토하면서 NIE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둘째, NIE 전문 강사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핵심 전문성과 자격을 파악한

후에, 이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발굴하고 시험 과정과 시행 방법 등의 검정 절차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NIE 전문 강사에 대한 직무분석은 NIE 전문 강사(교사, 사회인 대상 강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과 자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NIE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학습과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NIE 전문 강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구체적인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일반 교사가 NIE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목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NIE 전문 강사를 위한 교과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NIE 전문 강사를 검정하려면 시험 과정과 내용, 자격 획득 이후에 대한 사후 관리 등 검정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교과과정을 어떻게 설정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강사가 NIE 교육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또한 NIE 전문 강사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회에서 전문 직무 또는 직업으로 NIE 전문 강사로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자격 검증에 응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양성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NIE 전문 강사로서 자격검증이 이루어진 자에 대한 취업과 경력개발,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3. 연구방법과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이상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서베이(the library survey) 방법, NIE 관련 미디어교육에 대한 한 국가 간 비교연구(national comparative study) 방법, 그리고 전문가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 서베이는 특정한 이론이나 현상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문헌조사이다. 본 연구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NIE 관련 미디어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이러한 NIE 교육의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 교사 양성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목적을 갖기 때문에, NIE 교육 현황, 교육과정, 미디어 관련 자격제도 등에 대한 기존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간 비교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국가간 비교연구는 몇 개의 사례에 토대를 두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과 시사점을 포착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국가간 비교연구는 비교 대상 국가들 사이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과 차별성을 통해 어떤 법칙과 패턴을 도출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NIE 전문 강사 검정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NIE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문 교사/강사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검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입하고자 할 때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절차와 기준을 도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전문가 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서베이,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문헌에서 밝혀낼 수 없는 현실적인 변화 상황을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 조사에 기본적으로 포함될 연구내용은 NIE 전문 강사 자격검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운영 주체와 과정, 직무내용, 응시자격, 검정의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며, NIE 전문 강사 자격검정 제도를 활용한 교육과정 정립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Ⅱ. 멀티 플랫폼 환경과 NIE 변화

1. NIE의 개념과 목적

NIE(NIE; Newspaper In Education)는 흔히 ‘신문을 학습에 이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현종익 외, 2002, 426쪽). 즉, 인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활용한 모든 교육적 활동이 바로 NIE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NIE는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적 개념은 학교 교육에서 신문을 보조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NIE 활동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교수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NIE는 1930년대 미국 뉴욕시에서 출발했다. 당시 뉴욕시의 학교와 교사들은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특징을 지닌 신문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조 교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를 정기적으로 교실에 배포하면서 NIE가 시작됐다(한국신문협회, 2005).

학교 교육의 보조 교재로 신문을 활용하는 것을 NIE로 정의할 경우, NIE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하다. 즉, 교육의 필요에 따라 신문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고, 교사들이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내로 제한하여 NIE의 목적을 살펴보면, 수동적이며 암기 위주의 지식습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동적 지식 습득과 창의적인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사 입장에서 NIE의 목적은 학교에서 신문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디어로서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영상의 실적 달성이다. 실제로 신문사는 NIE 참여를 통해 미래의 독자가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문에 더 익숙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신뢰를 높여주면서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광의적 개념은 NIE를 미디어 교육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미디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로도 불린다. NIE를 단순히 학교에서 보조 교재로 활용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신문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영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교육으로서 NIE를 규정하는 관점은 시민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민주사회가 유지되려면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해를 표명하고 핵심 사안에 결속(engagement)이 가능한 유식한 시민(informed citizenry)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유식한 시민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신문만큼 좋은 미디어가 없으며, 고로 NIE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미디어 교육의 보루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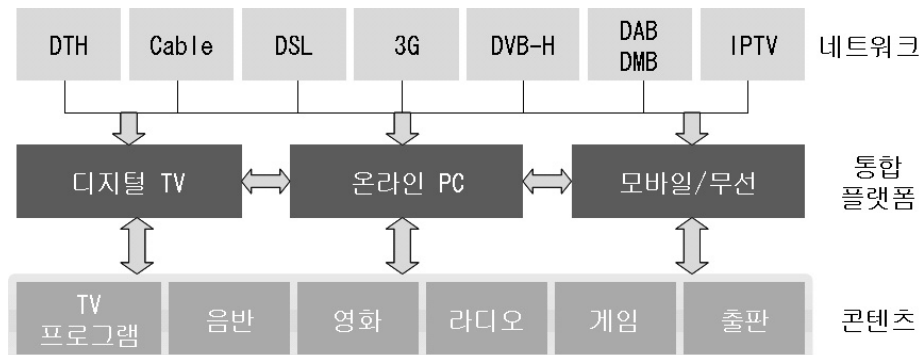
미디어 교육으로서 NIE의 목적은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신문은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 미디어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NIE를 통한 미디어 교육은 신문이 사회가 적절히 기능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신문사 추구하는 NIE의 목적은 사적인 것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으며, 미디어라는 공적 제도로써 신문이 담당해야 하는 공익(public interest)을 NIE 활동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된다. 또 하나 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사회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Buckingham, 2000), NIE의 목적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2. 멀티 플랫폼 환경과 NIE

1) 멀티 플랫폼 환경과 특성

최근 커넥티드TV, 스마트TV, DVR, 게임 콘솔,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등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커넥티드 단말기가 등장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e-book 리더 등 풀브라우징 인터넷이 구현되는 이동 단말기의 확산으로 멀티 플랫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멀티 플랫폼 환경은 특정한 단말기 또는 플랫폼¹⁾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이용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개별 네트워크 간의 경계가 사라진 미디어 환경을 뜻한다. 즉, 유무선 브로드밴드의 확산으로 방송통신융합의 중심이 PC에서 TV와 모바일로 이동하고, 전통적으로 구분되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다양한 단말기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칭한다.

<그림 1> 멀티 플랫폼/통합 플랫폼 환경의 개념도



출처: Screen Digest, et. al. (2006)

- 1) 플랫폼의 어원은 plat+form으로 구획된 땅의 형태를 띠는 장소이며 그 위에 구축되는 건물, 시설 등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인터넷 확산 이후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됐다. 한편, 경제학에서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 두 시장을 중개하는 장 또는 주체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미디어 영역에서 플랫폼은 콘텐츠 시장과 수용자 시장을 중개하는 또는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콘텐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멀티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지만 여러 정의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현(2006)은 “미디어 플랫폼이 상호연계되는 플랫폼상 호연계성(interplatformality)을 언급하면서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들며 여러 플랫폼의 콘텐츠를 동시에, 비동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멀티 플랫폼밍(multi platforming)’”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세경(2010)은 N스크린 환경²⁾을 크로스 플랫폼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연계성(connectivity),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통합성(integration)이 구현되는 미디어 환경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로스코에(Roscoe, 2004)는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폰, 그리고 기타 디지털 및 상호작용 스크린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가로질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멀티 플랫폼 미디어 이벤트(multi-platform media event)’로 설명하고 있다. 조사기관 스크린 다이제스트(Screen Digest, et. al., 2006)은 디지털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증가하면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TV, 온라인 PC, 그리고 모바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통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의들을 근거로 볼 때, 여러 네트워크가 연계되는 여러 플랫폼 중에 하나만 접근하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동시켜 소비하고 이용자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이용구조가 바로 멀티 플랫폼 환경인 것이다.

멀티 플랫폼 환경은 기존 미디어와 구별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다. 인터넷의 연결성으로 상시적인 상향채널(return path)을 확보함에 따라 모든 미디어가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멀티 플랫폼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으로 인하여 이용자는 미디어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택하고 주문하며 심지어 이동시킬 수 있는 자기 통제권(self-control)을 확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성은 이용자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까지 형성할 수 있도록

2) N스크린은 AT&T이 TV, PC, 휴대전화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전략으로 3스크린 전략을 제시한 것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즉,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랫폼과 단말기에서 사진, 음악, 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끊임없이(seamless) 접근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이동시켜 소비하거나 여러 이용자/소비자가 협동적으로 공유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뜻한다.

도와주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개인화(personalization)와 최적화(customization)이다. 최적화란 개인들의 니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약간씩 변경하는 또는 개인 취향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심과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생산과 유통 양식을 지칭한다. 멀티 플랫폼 환경은 이러한 최적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플랫폼이 서로 연결되어 수많은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세분화된 이용자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특히 멀티 플랫폼 환경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의 선호와 만족에 따라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개인 차원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이용자/소비자 분화 또는 극화 현상이다. 소비자 분화는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소비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분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상호작용성으로 이용자가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개인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면서 더 이상 대량의 단일한 수용자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콘텐츠를 자신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자신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 플랫폼 또는 미디어 선택을 달리하고 소비의 시간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를 여러 세그먼트로 바꾸고 있다.

2)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10대의 미디어 이용

멀티 플랫폼 환경이 기존 미디어와 다른 특성을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손쉽게 접하고 익히며 자랐던 10대들은 멀티 플랫폼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멀티 플랫폼이 제공하는 특성을 더 많이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반영하고 있다. 즉, 멀티 플랫폼 환경이 제공하는 새로운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른 세대들보다 10대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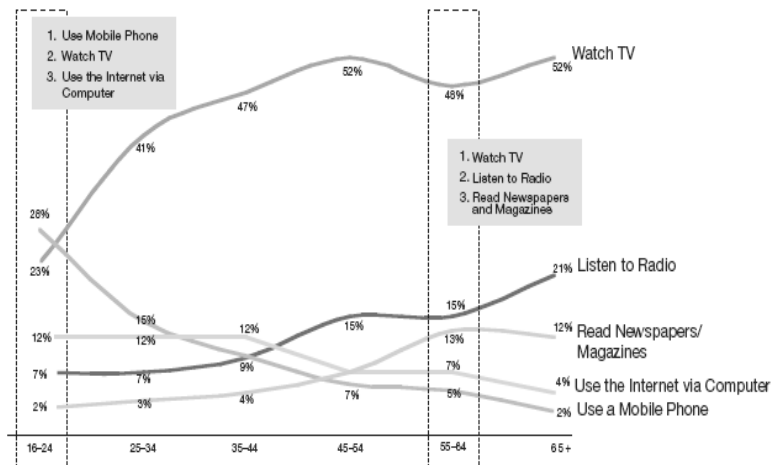
최근 닐슨(Nielsen)이 미국 10대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세대에 비교해 볼 때 단문자 메시지 전송과 음성 전화 등 모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TV시청과 신문을 이용하는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가하는 미디어 선택에서 콘솔 게임과 PC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2> 미국 10대의 전형적인 미디어 소비

Media Consumption of a Typical U.S. Teenager as measured by Nielsen			
TV 3 hours, 20 minutes	PC 52 minutes including applications	Mobile Voice 6 minutes	Video on an MP3 Player 1 in 4 watched
DVR 8 minutes	Internet 23 minutes	Text-Messages 96 sent or received	Audio-Only MP3 Player 1 in 2 used
DVD 17 minutes	Online video If they watched, watched 6 minutes	Mobile video If they watched, watched for 13 minutes	Newspaper 1 in 4 read
Console Gaming 25 minutes	PC Games 1 in 10 played, today	Mobile Web 1 in 3 used	Movie Theater Went once in the past 5 weeks

<그림 3> 영국 이용자의 세대별 미디어 이용시간 비교



Source: Capgemini TME Strategy Lab analysis; Ofcom, Media Literacy Audit, May 2006.

영국에서도 세대별로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모바일 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TV 시청과 인터넷 이용 비중이 높았으나 신문과 잡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나이가 들수록 모바일 이용이 감소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 미디어의 이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었다.

10대들의 미디어 이용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현상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태블릿과 e-book 리더의 조기 채택과 소셜네트워크사이트/소셜미디어(이하, SNS)의 이용이라 할 수 있다. 태블릿과 e-book 리더는 매우 새로운 미디어이며 높은 가격으로 아직까지 조기 채택자에 국한하여 확산이 이루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 두 미디어가 모바일로서 속성과 인터넷 연결성으로 기존 랩탑 컴퓨터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10대까지 확산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10대의 일상은 학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태블릿과 e-book 리더가 이러한 부분에서 10대의 니즈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SNS는 자신들만의 독립된 세계와 관심 공동체를 갖고자 하는 10대들에게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10대들의 미디어 이용의 차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독특한 미디어 이용 행태와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물리적 공간을 뛰어 넘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교적, 집단적 이용이다. TV와 소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동영상을 물리적으로 떨어진 친구, 동료, 가족 또는 집단이 같이 시청하는 사교적 시청(sociable viewing), 집단 시청(viewing party)이 여기에 해당한다(Talyor, 2010; Reuters, 2011. 3. 9). 즉, 거실 TV처럼 동일한 공간은 아니더라도 개인 단말기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족, 친구, 동료, 관심공동체 등과 콘텐츠를 같이 이용하는 맥락을 뜻하거나, 동시에 이용경험을 공유하는 이용행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사교적, 집단적 이용을 통해 이용자가 서로 이용경험을 공유하는 현상을 ‘가상적 우물가 정담 효과(virtual water-cooler effect)’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지는 않지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구전으로 중계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험 양식(Nathan, et. al., 2008; Stelter, 2010. 2. 14.)이다. 또는 관심공동체가 동일한 콘텐츠를 보면서 코멘트를 남기고 추천하기, 퍼나르기, UCC로 재생산하기 등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집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사교적, 집단적 이용맥락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10대와 젊은 세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TV를 시청하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전체 43%였지만 18-34세 성인에서 나타나는 비중은 59%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가 TV 시청하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가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크지만, 자신이 지금 시청하는 것을 친구, 동료, 가족에게 추천하고 제안하는 사교적, 집단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다(Yahoo, 2011).

<표 1> TV 프로그램 관련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

Base: All online U.S. adults

	Total	Age				Education		
		18-34	35-44	45-54	55+	H.S. or less	Some college	College grad +
	%	%	%	%	%	%	%	%
Engages with programs online (NET)	43	59	40	36	28	35	47	48
Yes, before watching the program	18	28	18	14	8	13	22	21
Yes, while watching the program	17	31	16	10	5	12	19	21
Yes, after watching the program	33	42	33	31	22	26	37	38
No I have never used technology or social media in this way	57	41	60	64	72	65	53	52

출처: Harris Interactive (2011).

<그림 4> 커넥티드 TV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콘텐츠 소비 활동



출처: Yahoo (2011).

둘째, 플랫폼/단말기 이용과 소비자의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서로 연동되는 생활 주기(life-cycle) 이용습관이다. 소비자 생활주기에 적합한가 여부에 따라 미디어 이용을 결정하고 소비자는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대한 선택을 달리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생활주기 이용습관은 미리보기, 다시보기, 이어보기 그리고 따라잡기(catch-up) 등과 같은 추적소비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래 TV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가장 매력을 느끼고 있는 서비스는 ‘따라잡기 TV’와 ‘다시보기의 기능’ ‘시간이동’ 그리고 ‘주문형 시청’ 인 것으로 확인됐다(Accenture, 2008; Sikes, 2010). 이러한 향상된 TV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10대들과 젊은 세대들이다.

〈표 2〉 교차 플랫폼 시청 시간 월간 소비증가 추이

	11년 1분기	10년 4분기	10년 1분기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분)
전통적 TV시청	158:47	154:05	158:25	0.2%	0:22
시간이동 TV시청 (모든 TV가구)	10:46	10:27	9:36	12.2%	1:10
DVR 플레이백 시청 (DVR 가구)	26:14	25:52	25:48	1.7%	0:26
컴퓨터 기반 인터넷 사용	25:33	25:49	25:54	-1.4%	-0:21
인터넷 비디오 시청	4:33	4:24	3:23	34.5%	1:10
모바일 폰 기반 비디오 시청 시간(가입자)	4:20	4:20	3:37	20.0%	0:43

* 2세 이상 시청자 2억9천7백만 명 대상
출처: The Nielsen Company (2011).

닐슨(The Nielsen Company, 2011)의 교차 플랫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사공간 이동시청이 점차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전체 TV가구의 전통적 TV시청은 전년 대비 0.2%(22분)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인터넷 비디오 시청은 34.5%(1시간 10분), 모바일 비디오 시청은 20.0%(43분), 시간이동 TV시청 12.2%(1시간10분)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대간에 TV시청

패턴을 비교해 보면, 10대들은 모바일폰을 이용한 비디오 시청이 다른 세대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로 주간 평균 20분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45세 이상에서 5분 미만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이다. 하지만 TV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공간 이동시청은 10대들보다 30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절대적인 TV시청에서 10대가 가장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3〉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장소

	스마트폰	아이패드 터치	태블릿
집	74%	76%	78%
자동차	55%	50%	31%
그 외의 실내	48%	41%	37%
야외	47%	36%	35%
대기시	47%	35%	19%
레스토랑/카페	41%	41%	28%
사무실	41%	31%	35%
쇼핑몰	34%	29%	20%
대중교통	31%	28%	21%
학교	20%	30%	20%
비행기	18%	23%	27%

* 최근 1달 이내 비디오 이용자 1,460명 대상, 2011. 4. 28~5. 12, 온라인 조사
출처: CTAM & Nielsen (2011).

이처럼 생활주기 적합성을 추구하는 이용은 시·공간 이동서비스(time/space shift)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신의 스케줄과 생활주기에 따라 콘텐츠 이용맥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콘텐츠/서비스 이동성(portability)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멀티 플랫폼 환경으로 ‘시공간 이동’과 ‘저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상시 접속된 모바일을 통해 이동중(on the move)에도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10대가 자신의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정을 제외하고도 자동차, 야외, 대기시, 레스토랑/카페, 쇼핑몰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터치, 태블릿을 통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N스크린 환경으로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한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생활 스트리밍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CTAM & Nielsen, 2011).

셋째, 플랫폼/단말기에 대한 ‘중복 또는 동시 소비’ 현상이다. 이는 여러 단말기를 동시에 소비하거나 교차하여 소비하는 이용 행태라 할 수 있으며 흔히 멀티태스킹(multitasking)로 정의될 수 있다. 중복 또는 동시 소비는 소비자가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플랫폼/단말기에 대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목을 분산시키는 이용습관을 형성한다. 즉,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소비자는 부분 주목(partial attention)의 상황에 있다가 자신이 선호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가 제공될 때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다. 멀티 플랫폼 환경이 하나의 소비에서 다른 소비로 재빠르게 이동하는 ‘바뀌 주어담기(packet-switch)’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Meyer, 2005).

해리스 인터랙티브(Harris Interactive)의 최근 온라인 조사에서도 이러한 동시 또는 중복 소비라는 이용행태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3명이 TV를 시청하면서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0%), 오직 14% 만이 TV 시청 중에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TV를 시청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중미디어 이용 행위를 살펴보면 인터넷 서핑(56%)이 가장 많았고, 책잡자·신문 읽기(44%),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이동(40%), 모바일폰의 텍스트 보기(37%) 순으로 나타났다(TVBR.com, 2011. 6. 15.).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18세와 34세 사이에서 다중미디어 이용행태가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사이트 이용, 모바일 텍스트 보기에서 특히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TV 시청 중에 다중미디어(멀티태스킹) 이용 활동

(단위, %)

	총	연령				성별		교육		
		18 - 34	35 - 44	45 - 54	55 +	남	여	고교생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서핑	56	68	59	55	45	53	59	52	57	62
책, 잡지, 신문 읽기	44	42	41	44	47	37	51	35	50	51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이용	40	57	47	36	21	34	45	33	44	46
모바일폰 텍스트 보기	37	57	46	38	14	35	39	28	41	47
온라인 쇼핑	29	40	33	27	19	27	31	22	31	39
모바일폰을 활용한 인터넷 서핑	18	30	23	15	6	20	16	10	19	29
ebook 전용단말기로 책 읽기	7	6	8	9	7	6	9	5	10	9
태블릿을 활용한 인터넷 서핑	7	7	13	4	5	8	6	6	50	11
기타	30	32	26	28	30	26	33	26	33	32
아무것도 하지 않음	14	8	12	16	20	18	11	19	12	10
TV 비시청	3	5	3	2	2	4	2	3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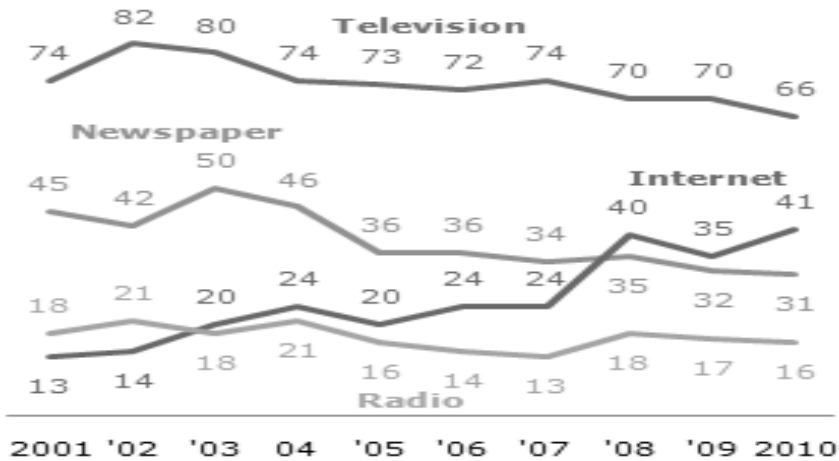
* 참고 : 미국 성인 2,309명 대상, 2011. 5. 24~26 동안 온라인 조사 실시

출처 : Harris Interactive, TVBR.com (2011)에서 재인용

3) 10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NIE

지금까지 살펴보면 멀티 플랫폼 환경의 특성과 10대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는 NIE에게 있어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선 신문에 대한 이용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NIE 활성화 측면에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10대들이 신문을 거의 활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을 활용한 학교 교육효과 극대화 또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에 대한 이용 감소는 미디어로서 영향력까지 감소시킴으로써 NIE의 실효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점차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미디어로서 신문을 인식하지 않거나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상실하게 되면 부교재로서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현장으로서 효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전국 또는 국제 뉴스를 의존하는 미디어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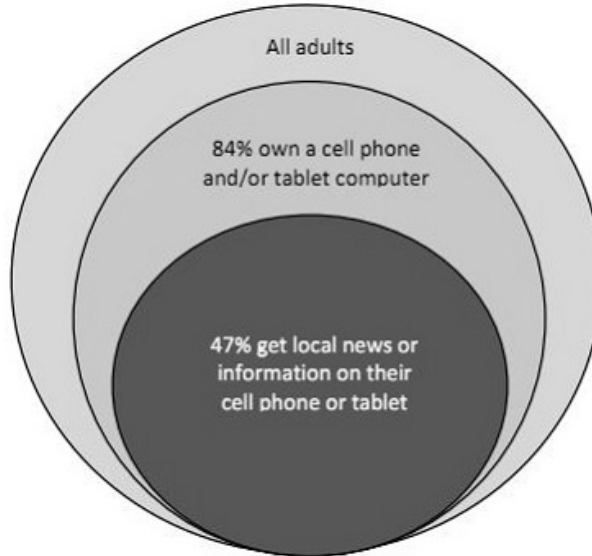


PEW RESEARCH CENTER Dec 1-5, 2010. Figures add to more than 100% because respondents could volunteer up to two main sources. If asked more than once in a calendar year, trend shows final datapoint from each year.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부교재 역할 또는 학습 교재로서 위상은 점차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사들은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의 일환으로 신문을 활용하기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한다. 인터넷은 풍부한 웹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협동과 공유를 통해 정보와 지식이 생산되는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통해 지식의 신뢰성까지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웹2.0의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대중(crowd)에 의해 수행되며, 이러한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고급 정보는 자연스럽게 지식의 생산으로 발전되고 저급 정보는 모두가 공감할 때 엔터테인먼트로 유명세를 얻게 된다(Howe, 2007.5.2). 따라서 인터넷은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식을 부여하는 권위에 있어서 신문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멀티 플랫폼 환경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은 시민교육에서 신문의 활용성까지 위협한다. 유식한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 사안을 적절히 매개할 수 있는 미디어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적절한 관심은 시민이 미디어에 대한 정보와 의견에 대해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결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문은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고 상호작용성을 활성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유식한 시민을 양성하는데 있어 다른 매체보다 불리하다.

<그림 6> 미국 성인의 휴대폰과 태블릿 보유 현황과 뉴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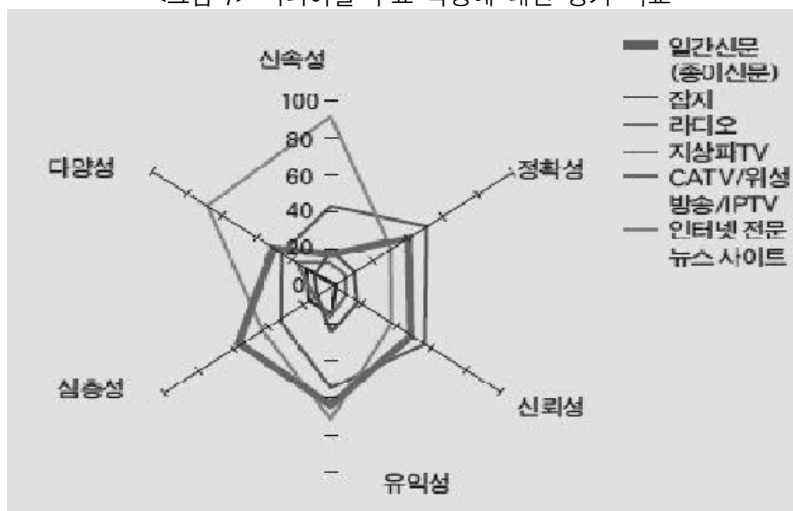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 (2011).

멀티 플랫폼 환경이 NIE에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점차 전통적인 의미의 신문을 읽지 않고 있으며 10대들이 게임과 모바일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문사가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신문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e-book 리더에서 더 편의성 높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신문 읽기를 유도하는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신문사들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뉴스 서비스를 최적화시킨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보급, 뉴스 경보(news alerts)와 이미지 중심의 헤드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록 10대는 아니지만 성인의 84%가 휴대폰과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의 47%가 자신의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뉴스를 얻고 있었다. 멀티 플랫폼 환경으로 모바일 이용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신문 서비스가 향후 주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이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도 여전히 미디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2010년에 한국신문협회(안민호, 2011)가 신문 독자 프로파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문-인터넷·TV 모두에 의존하는 ‘다중 미디어 의존자 집단’의 신문 열독률이 ‘신문 의존자’ 집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속성, 다양성, 정확성 측면에서는 인터넷과 TV보다 영향력이 낮았지만 신뢰성, 유익성, 심층성에 대해서는 신문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확인됐다. 신문이 보다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 생산에 유리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 독자의 감소에 불구하고 하루 평균 신문을 읽는 시간이 2008년 대비 7.3분 증가한 약42.9분으로 나타나고, 45분 이상 신문을 읽는 독자의 비중이 2008년 대비 약 11% 증가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멀티 플랫폼 환경으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얻는 것은 다른 미디어에 의존하더라도 추가적인 지식과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관심을 결속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미디어 이용 행동에서는 신문에 더 의존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7> 미디어별 주요 속성에 대한 평가 비교



출처: 한국신문협회 (2011).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당한 시간이 인터넷 포털을 통한 신문 기사를 읽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태깅(tagging)하는 것에 사용한다는 점도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NIE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더 있어야 하겠지만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접근한 뉴스의 상당량이 종합일간지 또는 인터넷 신문을 정보원으로 한 것이다. 또한 다른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얻더라도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신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신문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관점은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NIE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놓고 있다. 사회에 더 많은 정보가 공급될수록 지적인 여과기(intelligent filter)가 필요하며 신문은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여러 미디어를 통합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티 플랫폼 환경이 NIE에게 주는 이러한 기회는 이용자가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다양한 미디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신문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을 위한 NIE이든 아니면 시민교육으로서 NIE이든 이것의 목적을 완수하려면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신문이 주는 장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신문을 적절히 그리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곧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3.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와 디지털 NIE 역할

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영역

미디어 리터러시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미디어 교육’이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다. 초기 미디어 교육은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NIE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다만 NIE가 교수법 측면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라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새로운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용하도록 지도할 것인가에 더 방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텔레비전 시청기술(television viewing skill)' 혹은 '수용기술(reception skill)' '텔레비전 이해훈련(television awareness training)' 등을 지칭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더욱 확장된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과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해 냄으로써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Gilster, 1997). 이러한 새로운 개념 확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컴퓨터에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예 디지털 리터러시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유영만(2002)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 판단하고 광속으로 움직이는 정보를 취사, 선택, 편집, 가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멀티 플랫폼 환경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으로 이용자 통제권이 증가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더욱 확장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모든 미디어에 인터넷 연결성이 확보되면서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간의 사회적 소통까지 매개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정보와 콘텐츠를 서로 추천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간다. 심지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카카오톡(KakaoTalk) 등으로 상징되는 소셜 미디어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용자 간의 논의 활성화를 통해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중심에서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스트레즈(Fastrez, 2009)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술적(technical), 인지적(cognitive), 사회적(social)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이는 정보생산을 위한 기술적 미디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생산된 정보를 확산하고 공유하려는 의도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과 공공의 의제를 공유하는 의지를 포함한 광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U와 UNESCO 역시 광의적 개념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생산, 교환하며 나아가 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능력”이다 (EAVI, 2009). 이는 앞서 살펴본 시민교육으로서 NIE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표 5〉 EAVI의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

	리터러시 영역	세부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사용 능력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능력
	정보의 비판적 해석 능력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의 비판 해독과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보나 의견 생산 및 교환 능력, 사회참여 능력

2) 디지털 NIE의 역할

미디어 환경 변화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한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방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신문을 통한 학습에서 출발한 전통적인 NIE 역할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구나 방송통신융합과 멀티플랫폼 현상으로 신문이 더 이상 종이신문으로 국한되지 않고 문자 매체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NIE 영역을 확장하고 그 역할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전통적인 NIE와 차별하기 위하여 디지털 NIE로 명명하고 그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NIE는 단순히 학교에서 교수법으로 활용되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여전히 학교에서 확장되는 사회에 부합하는 교수법으로서 디지털 NIE의 가치는 계속 존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종이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갖고 학습에 활용하는 수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수동적인 지식 습득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 습득과 학업에 대한 즐거움을 주고, 적극적인

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능동적 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NIE는 미디어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이용자로서 신문을 1차적 미디어로 하여 여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문에 근간으로 하는 정보를 갖고 추가적으로 여러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입장에서 정보를 재생산하고 편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는 UCC처럼 자신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NIE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NIE 교육은 시민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공적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능력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NIE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회에서 유식한 시민(informed citizenry)으로 어떻게 공적 담론에 참여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실제 그러한 공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단계에서부터 느끼는 이러한 참여의 경험은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유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기존 신문 NIE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디지털 NIE가 교수법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며 이를 전수하는 직무가 사회 내에서 존중받는 것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NIE 강사라는 직업이 사회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지금의 신문 NIE처럼 일부 신문사 또는 교사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NIE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직무가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가치있는 직업으로까지 정착해야 한다.

Ⅲ. NIE 강사 자격 제도화 필요성 및 배경

1. NIE 강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국내 자격 관련 제도 운영 현황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전문분야로서의 직무유형(skill type)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필요한 조건’이란 그 직무유형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직무수준(skill level)을 말한다. 따라서 자격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직무유형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직무수준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상호·박종진·김상진, 2010). 한편 자격제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자격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제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능력(자격)을 갖춘 자(유자격자)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호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가자격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의 자질이 객관적·공정·공평하게 충분히 검증되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기 힘들도록 통일적 조건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내 자격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³⁾과 민간자격⁴⁾으로 구분되며 이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관리되는 자격은 총 556개에 이른다. 국가자격은 다시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노동부가 총괄관리하며 자격항목에 따라 17개 관계부처가 담당한다. 그러나 자격검정업무는 산하기관이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대부분 주무부처의 관리 하에 산하기관에서 실질적인 검정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표 6〉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법

법명	내용
자격기본법	1.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2. '국가자격을 신설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 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음
국가기술 자격법	1.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기술인력의 수급전망·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조사·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의 기준'에서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8), 영상·뉴미디어기술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자격제도 신설방안 연구.

2010년 9월 기준으로 현재 개별법의 부처 국가자격은 132개, 국가기술자격 556개, 민간자격이 1,354(등록자격)개, 사업 내 자격은 85개로 파악된다. 부처 국가자격 가운데 자격종목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이며, 이들 두 부처는 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등이 자격을 검정·관리하나, 대부분의 부처국가자격은 부처의 몇몇 전담인력이 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상호·박종진·김상진, 2010).

-
- 3)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표 7〉 우리나라 자격구분 및 현황 (2010년 9월 현재)

구분	종목수	관련법	시행기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556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국가자격	132개	개별사업법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87개	자격기본법
	등록민간자격	1,354개	자격기본법
	사업내자격	85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17개 부처(7개 기관)
			22개 부처·청·위원회 (67개 기관)
			11개 부처(46개 기관)
			440여 개 기관
			44개 사업체

* 출처 : 민간자격정보서비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Q-net(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주: 등록민간자격의 수에는 공인민간자격의 수도 포함되어 있음.

〈표 8〉 국내 교육서비스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분야

유형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습지도관련자격	사서교사, 실기교사, 정교사 준교사 직업, 능력개발훈련교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 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 사, 한국어교원(3급), 경기지도사, 생 활체육지도자	두뇌운동전문지도사, 브레인트레이너, 아동학습지도사, 유아 및 아동교육지도 사, 학습케어교육사, 학습전문코치, 학 습코치자격증 등
자기주도학습 관련자격		사이버학습코치,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코치, 멘토링지도사 등
방과후지도 관련자격		방과후 아동지도사, 방과후 지도사, 방 과후 학교지도사자격증, 방과후 아동지 도사자격증 등
영재지도관련자격		아이버레인영재지도사, 영재놀이지도 사, 영재전문지도사자격증 등
성격지도관련자격	전문상담교사	아동성격지도사, 어린이성품전문지도 사,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등
상담관련자격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등
심리지도관련자격		미술심리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음악 심리지도사 등
진로 및 경력지도 관련자격	평생교육사	인재파견지도사자격증, 청소년진로코 칭지도사자격증, 커리어코치 등
발달관련자격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	발달놀이교육사, 발달심리자격증, 발달 장애지도사, 발달장애상담사등
특수교육 관련자격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특수아동교육 사, 특수아동지도사, 자폐증재활교육 사, 재활놀이교육, 특수재활교육사, 특 수재활체육교육사 등

* 출처 : 조정윤 외(2010),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편,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분야의 자격은 25개의 국가자격과 447개의 민간자격이 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 분야의 민간자격은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공인민간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은 <표8>에 제시한 바와 같이 10개 분야로 유형화할 수 있다(조정윤 외, 2010).

점차 민간자격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민간자격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분야에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신설을 검토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경우 직무영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국가자격 취득자의 권익을 과보호하고 민간자격의 신설 여지를 축소시킨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박종성, 2010).

2) NIE 강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

자격제도와 관련한 정부규제는 전형적인 진입규제(entry regulation)에 해당한다.⁵⁾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정부는 자격제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개입이 면허형태로서 구체화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자격종목을 신설하지 못하였던 자격종목을 국가자격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설, 둘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국가자격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존재한다. 국가자격의 관리

5)정부의 진입규제가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첫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운영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격취득자의 활용 측면에서 정부가 책무성을 갖게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민간자격을 정부가 공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조정윤 외, 2010).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자격 도입의 목적은 첫째,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당서비스의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를 갖추고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며, 셋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자격제도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첫째, 자격의 신설 시 시장에서의 서비스 요구도, 직무전문성, 직무수행능력 인정 필요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신설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자격으로 신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자격시장에서는 국가보다도 더 재빠르게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국가자격으로 자격을 신설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신설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자격 신설여부를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격시장이 왜곡되던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기존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를 통해 관련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서비스질 향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격취득자의 직업적 위세 강화를 통해 임금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는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취득자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당 자격의 수준과 내용을 개선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으로 거듭나기보다는 정부에 기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민간자격시장의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물론 민간자격시장을 왜곡함으로써 건전한 민간자격시장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는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비용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NIE와 관련해서는 민간자격시장에서 중앙일간지부터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들과 심지어는 논술학원이나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까지 관련 강좌를 개설하

고 수료자에 대해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민간차원의 중복적이고 임의적인 자격 부여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함으로써 바람직한 자격의 내용 수준 그리고 자격취득자의 활용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⁶⁾

현재 NIE 강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서 언론사, 논술학원, 교육기관 등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해 일정한 기준 없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NIE 강사 자격증은 책임 있는 운영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 자격증의 남발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NIE 강사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자격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에서 부여하고 있는 NIE 강사 자격증 역시 대부분 민간단체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교재판매 및 교육실시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NIE 강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NIE 교육 관련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NIE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전문성 있는 강사진의 육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NIE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NIE 강사 육성시스템을 국가자격 제도로 체계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위상 정립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기초한 자격제도를 부여함으로써 자격취득법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화된 효율적인 자격관리로 자격부여는 물론, 자격관리 및 자격취득자들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NIE 강사 자격제도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NIE 강사의 자격제도 도입은 NIE 교육 종사자들의 위상 제고를 통해 자격취득자들의 직업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6)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이 특정민간자격을 중심으로 민간자격시장을 재편하게 하여 민간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도입과정에서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IV. NIE 강사 교육 현황

1. 언론사 및 관련단체

1)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내의 NIE 강사 육성 기관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고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NIE 강사 육성을 위해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과 NIE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NIE 강사를 양성한다. NIE 강사를 육성하는 NIE 전문가 양성과정은 NIE수업설계, 창의성을 키우는 NIE, NIE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의 실제, NIE와 국어교육 접점찾기, NIE 특별활동/ 학습지도안, NIE 수업의 실제/수업에 적용하는 NIE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NIE 지도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NIE 수업지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NIE 수업지도안 개발 튜터로 활동하면서 신문기사 등 콘텐츠를 활용해 정기적으로「NIE 수업지도안」및 관련 활동지를 개발,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해외 NIE 미디어 교육 현장을 교사, NIE 활동가 등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탐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NIE 미디어교육 교사 전국대회를 실시하여 NIE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다(김기태·이연·허병두·이소현·고은희, 2010).

2) 경향신문 NIE 통합논술(준, 정) 지도사

경향신문은 NIE 지도자 자격증, 논술 지도자 관련 교육 및 자격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NIE 통합논술 준·정 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이

과정은 준 지도사의 경우 응시자격을 타 기관(대학부설, 문화센터, 복지관 등) 논술, 독서, 글짓기 관련 40시간 이상 교육 수료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기타 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 지도사의 응시자격은 타 기관(대학부설, 문화센터, 복지관 등) 논술, 독서, 글짓기 관련 80시간 이상 교육 수료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기타 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자격증부여를 위한 시험과목으로는 소양교육, 실기시험과 이론시험이 실시된다. NIE 통합논술 준정 지도사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이 방과후 학교, 문화센터, 공부방, 학원 등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

3) 조선일보 NIE지도사

조선일보는 2008년부터 체계적인 NIE 지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NIE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현재는 20기까지 교육생을 배출한 상태다. 조선일보의 NIE지도사 과정은 6개월 집중과정과 11개월의 일반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6개월 집중과정은 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이 있고, 11개월 일반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방거주자를 위해 3개월을 주기로 15주 단기 집중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NIE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면 조선일보 법인 명의의 NIE 지도사 수료증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각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의 경우는 조선일보 NIE 지도사 수료증이 부여되며, 총 96시간의 전체 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실기, 프리젠테이션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NIE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NIE 지도사 과정의 집중반'은 기초-심화-전문가 3단계 과정으로 주2회(각 3시간) 수업하므로 세 과정을 연속으로 수강하면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일반반'은 초급-중급-고급-전문가 4단계 과정으로 주1회(각 2시간) 수업하므로 네 과정을 연속으로 수강하면 약 10개월이 소요된다. 집중반과 일반반의 커리큘럼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각 반의 모든 과정을 수강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NIE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다.

〈표 9〉 조선일보 NIE 지도사 양성과정 개요

모집과정	수업	장소	세부과정
일반과정(1년)	주1회 오전 (120분 ~ 150분)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NIE교육문화센터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집중과정(6개월)	주2회 오전(120분 ~ 150분)		기초, 심화, 전문가
직장인과정(1년)	주1회 야간(120분 ~ 150분)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지방단기과정(3개월)	주1회 (1일 7시간)	지방	기초, 심화, 전문가

* 출처 : 김기태 외(2010), 한국적 NIE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선일보 NIE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조선일보 NIE지도사 자격증과 동시에 한국NIE협회 NIE 지도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조선일보 NIE지도사 자격증 취득자의 진로는 대부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교사, 중학교 특기정석교사, 공공도서관 등의 시·군·구청 등 지역단체 또는 평생교육원 강사, 학원강사 및 홈스쿨 교사 등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서울교육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조선일보 리더스 NIE 지도사 양성과정’ 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조선일보 리더스 NIE’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NIE 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각과정별로 50명씩의 정원으로 운영되며 교육기간은 3개월이다. ‘조선일보 리더스 NIE’ 강좌는 ‘조선일보 NIE 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한 기본교육과 ‘조선일보 리더스 NIE’ 홈스쿨 교사 자격시험, NIE를 활용한 수업실습, NIE 활동 후 집단 토론, 조선일보 NIE교재 학습(테마NIE, 이슈NIE) 등으로 진행된다. 과정 수료자는 ‘조선일보 리더스 NIE’ 홈스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향후 ‘조선일보 NIE지도사 과정’의 심화, 전문가 과정을 통해 NIE 전문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표 10〉 조선일보 NIE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회차	과목	교육 내용	시간
1강	신문의 이해	-지도사 양성과정 소개 -신문의 구성요소, 순기능과 역기능	3
2강	NIE의 이해	-한국의 NIE와 세계의 NIE -NIE 효과 알기	3
3강	창의력과 NIE(1)	-창의성 개발과 표현을 위한 NIE활동 -사고의 확산을 위한 NIE 활동(유창성, 독창성)	3
4강	창의력과 NIE(2)	-사고의 확산과 표현의 정교성을 위한 NIE 활동 (융통성, 정교성, 민감성, 개방성)	3
5강	인성과 NIE(1)	-인성, EQ란? -자기인식 능력을 키우는 NIE활동 -자기 조절능력을 키우는 NIE활동	3
6강	인성과 NIE(2)	-자기동화 능력을 키우는 NIE활동 -감정이입 능력을 키우는 NIE활동 -대인관계기술 능력을 키우는 NIE활동 -청소년기의 인성과 NIE	3
7강	읽기 전략을 활용한 신문읽기	-다양한 읽기 방법 알기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신문 기사 읽기	3
8강	신문 만들기	-독서 신문 만들기 -주제 신문 만들기	3
9강	신문의 구성 요소별 NIE (1)	-신문의 구성요소 알기 -사진과 기사를 활용한 NIE활동	3
10강	신문의 구성 요소별 NIE (2)	-만화, 그래픽, 광고를 활용한 NIE 활동	3
11강	교과 연계 테마NIE 학습	-교과 연계 테마 NIE 학습 방법	3
12강	시사 이슈NIE학습, 수료식	-시사 이슈 NIE학습 방법 (조선일보 교육 전문 기자 특강)	3

* 출처 : 서울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lifelongstudy.ac.kr/>)

4) 중앙일보 NIE논술지도사

국내 신문사 가운데 최초로 NIE 교육에 참여한 중앙일보는 NIE 지면 운영과 더불어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NIE 연수사업, NIE 교재개발과 효과측정·학술활동 전개, NIE 연구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995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NIE 연수를 시작했다. 중앙일보의 NIE논술지도사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각각 3개월씩, 심화과정은 2개월로 총 11개월의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교육내용은 초급이 NIE의 개념과 신문의

이해단계, 중급이 정보를 찾고 이를 숙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 고급이 각 교과 영역의 적용방법을 포함한 고급사고를 배우는 단계, 심화가 교안작성, 교육이론 및 강의기법을 배우고 직접현장 실습을 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주1회 2시간 30분씩 실시되며, 자격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현재 중앙일보 NIE연수사업으로 양성된 NIE논술지도사는 실제로는 중앙일보 NIE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논술프랜차이즈 사업의 논술학원 강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NIE 전문 강사 육성과는 차이가 있다.

〈표 11〉중앙일보 NIE논술지도사 과정 교육내용

주	강의내용	비고
1	오리엔테이션, 특강	신문은 항상 준비
2	NIE의 이해	
3	신문의 이해	왜 신문인가?
4	신문 활용하기 (NIE활동 - 스크랩중심)	신문일기
5	신문구성요소 활용하기 1 - 사진 시각자료	구성요소별 활용 실습
6	신문구성요소 활용하기 2 - 광고	
7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 1 - 기사 활용	기사 활용 글쓰기 실습
8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 2 - 기사 활용	
9	교과 연계 신문 활용 교육	교과 연계 후 NIE 활동 접목
10	신문을 활용한 독서활동	독후활동
11	주제 신문 만들기 1	주제신문 해설
12	주제 신문 만들기 2	주제신문 발표 및 평가
13	통합 논술이란 무엇인가?	통합 논술 이론적 해성
14	기사를 활용한 논술 전략 1	주제 찾기, 주제문 작성
15	기사를 활용한 논술 전략 2	사설칼럼 활용 - 단락 구분, 논거찾기
16	통합 논술의 실제 1	논제 분석과 논술쓰기
17	통합 논술의 실제 2	첨삭 실습
18	주제중심통합 학습 실제 1	수업내용 구성하기
19	주제중심통합 학습 실제 2	

20	주제중심통합 학습 실제 3	
21	주제중심통합 학습 실제 4	
22	초등 논술 실전 - 『퍼니』, 『엔비』	『퍼니』, 『엔비』 교재 제공
23	교수 - 학습 계획안	교안 작성 실습
24	총평 및 수료식	수료증 배부

5) 한국전문기자협회 NIE전문지도사 양성과정

국내 전문지 및 지역신문의 기자들을 중심으로 1995년 설립된 한국전문기자협회는 전문성 있는 기자의 재교육과 더불어 경기도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서 NIE전문지도사 및 언론정보사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단체다.

NIE전문지도사는 연3회 자격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NIE개론, NIE교수법, NIE학습(실습)이다. NIE개론 등에서는 NIE 정의 및 신문 활용 지도를 위한 지면 구성과 명칭에 관해 이해, NIE교수법에서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점적 지도가 이뤄지고, NIE학습에서는 이어서 신문지면의 구성요소에 관해 주1회 3시간씩 3개월간 산하에 설치된 평생교육원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문기자협회는 NIE전문지도사의 교육목적을 신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수 기법을 이해하고, 유, 초, 중, 고등학생 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문 및 언론매체를 통한 창의성, 논술력, 문장 표현력, 자기표현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사 양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대상은 초대졸이상 동등한 학력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로 매분기별로 15명 정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NIE전문지도사 취득 후의 진로는 NIE교육관련업체 취업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문화센터강사 취업을 목표로 한다.

2. 기타 교육기관

1) 한국NIE협회

한국 NIE 협회에서 발급하는 NIE 지도사 자격고사는 2005년 3월 27일 1회 자격고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년 1월과 7월 연2회 서울, 대전, 부산에서 실시되고 있다. 2010년 현재 11회 NIE 자격고사까지 시행되었으며, 자격고사에 따른 보수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 제한은 없으며, 한국 NIE 협회에서 인정하는 강의처에서 NIE 지도자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수료자다. 한국 NIE협회 인정 강의처인 벅스북 평생교육원의 NIE지도자 온라인 교육의 경우 85%(71강좌)이상 수강이 요구된다.

시험은 40문항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시된 주제에 따른 NIE수업계획안 작성 및 예상되는 수행결과물 제작(100분간)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자격증 취득은 필기시험 70점 이상, 실기시험 80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다. 필기, 실기 시험중한 개만 합격한 경우 다음시험에서 합격한 과정의 시험이 면제된다.

〈표 12〉 한국 NIE협회 지도사 과정 교육내용

영역	과목	강좌명	시간
기본	NIE개론	NIE개념, 역사, 목적, 교육적 효과 국내외 NIE현황 신문의 교육적 장점과 단점	3
	신문개론	신문의 정의, 역할, 기능, 특징 신문의 종류, 신문역사 신문의 지면 구조와 명칭 뉴스의 가치와 종류, 신문용어	6
	신문의 구성요소	사진	6
		만화	5
		기사	9
		광고	6
	주제NIE	고정지면활용NIE 창의적 사고와 NIE 인성교육과 NIE e-NIE	4
	신문 만들기	신문제작과정, 주제별 신문 만들기 (가족, 독서, 인물)	4
심화	교과NIE & 시사논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 국제	20
	신문지면읽기	신문지면읽기	2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2
	독서NIE	독서NIE	3
	시사 토론, 토의	시사 토론, 토의	2
	국어 글쓰기NIE	국어 글쓰기NIE	3
	교과 통합NIE	교과 통합NIE	4
	수업지도안	월간, 일간 수업지도안 작성	4
2개 영역 13과목 83강좌 (총 83시간)			

2) 동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 NIE 지도사

동작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NIE 지도사 과정교육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동작구여성인력개발센터 NIE 지도사 교육과정은 신문을 활용하여 국어 사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과영역의 창의, 논리 사고영역 발달을 위해 글쓰기, 토론학습 등의 NIE 활용을 통한 교육 방법을 교육한다. 특히 NIE 지도사 과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학교 및 특기적성수업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여성인력의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동작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NIE 지도사 과정의 교육과정은 총 8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NIE 개념, 미디어이해, 기사이해, 기사분석능력, 신문활용 놀이법 등으로 주로 신문기사를 활용한 교육법에 주안점이 놓여있다.

〈표 13〉 동작구여성인력개발센터 NIE 지도사 과정 교육내용

시차	교육내용
1주차	NIE 이해, 신문이해
2주차	사진이해, 광고이해
3주차	기사이해 (기사의 종류, 낱말 읽기, 육하원칙으로 읽기)
4주차	기사이해 (발췌하여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표로 정리하며 읽기)
5주차	기사이해 (기사표제쓰기, 기사말로 표현하기, 기사전달하기, 기사 다양하게 읽기)
6주차	구성요소별 접근 (기사, 광고, 사진, 주식시세표)
7주차	구성요소별 접근 (만화, TV편성표, 일기예보, 오늘의 운세, 독자투고, 사설)
8주차	놀이로 접근, 북 아트로 접근

* 출처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홈페이지(http://dongjak.seoulwomen.or.kr/edu/edu_info_01.jsp)

3. 일본의 NIE 강사 육성현황

일본의 NIE 강사 육성은 일본신문협회와 신문협회 산하의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전국 지자체 단위에 NIE 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별로 NIE 교육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NIE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자격제도 및 검정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NIE 교육을 위한 강사의 육성은 공교육을 실시하는 교사 및 언론인 출신의 경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NIE 어드바이저’ 또는 ‘NIE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NIE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은 NIE 교육을 시행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NIE 교육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지만,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신문 제공이나 NIE에 관한 정보가 끊어져 결과적으로 학교에 NIE가 뿌리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과제가 제기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NIE 추진 협의회를 설립하고 2007년도부터 'NIE 어드바이저 제도'를 발족시켰다.

NIE어드바이저는 2년간의 NIE 교육지원사업이 종료되면 대상학교의 학교장이 NIE 활동 보급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NIE 어드바이저로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말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41개 지자체, 132명의 NIE 어드바이저가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로 NIE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익힌 NIE 관련 지식과 활동내역을 신규 NIE 도입 추진 대상교 등의 공개 수업이나 각종 연수회에 참가하여 발연자·조연자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NIE 어드바이저 제도의 이점은 이 제도를 통해 NIE 지원사업이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NIE 도입 학교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점과 NIE 어드바이저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신규 NIE 도입교에 조언 해 주므로써 경험이 축적되어 진다는 점이 거론된다. 또한, NIE 어드바이저가 증가하면 교사끼리의 네트워크 구성되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지자체별로 운영중인 NIE추진협의회는 NIE어드바이저가 공무 출장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거나 소속 학교장에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신문 재단 인정 NIE어드바이저와 별도로 개별 지자체의 NIE추진협의회 차원의 NIE 어드바이저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신문협회 산하의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NIE 어드바이저와 별도로 개별 신문사 차원의 NIE 강사 육성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지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은 물론이고 지역의 신문사들까지 나서고 있다. 신문사내의 체제를 정돈해 NIE의 추진 활동에 활발하게 임하고 있는 대표적이 지역신문사는 홋카이도신문사다. 동사는 「홋카이도 NIE 추진 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홋카이도신문의 NIE 지원 활동은 1996년의 홋카이도 NIE 추진 협의회 발족해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했던 것이 시작이다. 1997년, 사내 조직으로서 NIE 위원회를 설치, 2001년 NIE 강사 육성을 위해 NIE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전직 중학교 교장 를 맞이들었다. 2004년에는 독자 센터로부터 분리·독립해, 현재의 NIE 추진 센터를 만들었다. 동센터의 스태프는 현재 7명으로 주요 활동은 NIE 실천교예의 신문 제공 시작해 지역 세미나의 개최, 「홋카이도 NIE 통신」의 발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 사내

사업으로서 임하고 있는 NIE 교육을 위한 신문기자 파견 사업은 연간 약 40회(2002년)부터 2007년에는 80회로 늘었다. NIE 교육을 위한 책·지사·공장의 견학자수는 연간 2만명에 달한다.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사 견학은 01년부터 본격화해, 08년 9월에는 견학자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견학은 약 2시간 들여 실시해, 「신문이 생길 때까지」를 설명하는 DVD에 계속되어, 사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 편집 본부 특집반으로 신문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NIE의 사내 인지를 높이기 위해 동센터는 A4판 양면인쇄의 「NIE 추진 센터보」를 발행하고 있다. 2003년 4월의 창간 이래, 매월 1회, 사내 각부나 그룹 회사에 배포해 현재, 제69호를 발행했다.

일본 NIE 강사 육성은 주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NIE 교육의 핵심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강사를 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NIE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일된 NIE 교사 육성 교육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NIE 교육을 맡고 있는 곳이 공식적으로는 일본신문협회가 중심이지만,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교육적 목적보다는 NIE 교육을 신문판매 확대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개별 신문사별로 제각각 지역 학교와 연계한 NIE 강사 육성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즉, 전국단위의 NIE 강사 육성은 전국지인 메이저 신문사들이 원하는 반면, 일본처럼 지역신문이 발달한 특별한 신문유통 구조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지역기반의 개별 신문사로서는 전국전 단위로 실시되는 일본신문협회의 NIE 강사육성 사업이 자칫 중앙일간지의 지역판매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신문 차원의 개별적인 NIE 교육과 강사육성에 나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전국적인 통일된 NIE 강사육성 시스템의 구축 역시 자칫 중앙일가지의 판매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은 NIE 강사 육성에 관한 공식적인 시스템의 확립에 미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V.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1. 심층인터뷰 진행 개요

이 연구에서는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심층인터뷰 방법을 수행했다. 심층인터뷰의 목적은 국가공인 NIE 강사 민간자격제도 신설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자격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는데 있다.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IE 강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기존 NIE 자격증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로써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 시 고려요인
NIE 강사의 자격부여와 교사 및 언론인의 특수조건
NIE 강사 자격 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커리큘럼과 이수 학점 등)
NIE 강사 자격 검정을 위한 평가 방법과 과목
NIE 강사로서 능력과 직무 수행의 조건
NIE 강사 양성기관과 직업으로서 경력개발과정
NIE 강사 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지원 정책과 사업)

심층인터뷰 방법은 집단별 인터뷰 방식의 FGI 조사방법을 활용했다. 인터뷰는 2011년 9월에 미디어전략연구소 회의실에서 전문가 집단 20명을 3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개방형 질문지에 기초해 진행했다. 사전에 개방형 질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토론을 주도하여 각 주제마다 심도있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문가 집단은 NIE와 밀접한 이해가 있는 언론인 집단(5명), NIE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 집단(8명), 미디어 교육 전공 학자 집단(7명)으로 구분했다. 이처럼 구분하는 것은 NIE 강사 자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다르고, 이 세 집단마다 NIE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른 점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FGI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여러 집단의 입장을 파악하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이견의 구체적 근거를 파악하고 공통된 인식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했다.

2. NIE 강사 자격 현황과 문제점

1) 기존 민간 NIE 자격증 제도 평가

현재 NIE 강사 육성과 관련하여 민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NIE협회,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전문기자협회 등이다. 주로 NIE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자격증⁷⁾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별도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7) NIE지도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예를 들면 강원일보)도 많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들만 소개하였다.

〈표 14〉 NIE 자격증 발급 기관 현황

발급주체	자격증명
한국NIE협회	NIE지도사
한국전문기자협회	NIE전문지도사
중앙일보	NIE논술지도사
조선일보	NIE지도사
경향신문	NIE통합논술지도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존 민간 NIE강사자격증 제도가 NIE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NIE의 교육적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현실적으로는 NIE강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NIE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NIE를 보급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사D)

NIE를 지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달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언론인E)

반면 다양한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경우, 자칫 자격증이 남발되어 NIE의 공신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이지 못해 NIE강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이로 인해 NIE에 대해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일부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을 NIE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격부여라는 측면보다는 양성과정을 또한 상업적 이익 추구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자격증 발급이 지도사 양성과정과 연관된 경우 자칫 교육 프로그램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자격시스템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전공학자 A)

다양한 기관에서 자격증을 남발하여 발급할 경우 자격증의 공신력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발급기관을 일원화하여 NIE강사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교사C)

사설기관에서 우후죽순 남발하는 자격증으로 인해 오히려 NIE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어 엄격한 관리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B)

전문가들의 평가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기존 민간 NIE자격증 제도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① NIE의 활동상 홍보, 활성화 ② NIE의 저변확대 ③ 체계적인 NIE지도자 양성으로 NIE의 수준향상 ④ NIE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인식 확대 ⑤ NIE교육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수요 충족 ⑥ 일반인에게 신문의 유용성과 교육적 기여에 대한 좋은 인식 심어줌	①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NIE난립과 경쟁 (자격증부여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높음) ②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한 교육의 부실화, ③ NIE의 기초를 생략한채 테크닉만 강조하는 파편화된 교육 ④ 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과 인지적 사고를 고려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부재 ⑤ 자격증만 남발하고 이들의 지위나 역할 보장 못함 ⑥ 우후죽순격의 자격증 남발로 인한 NIE에 대한 불신증폭 ⑦ 일원화된 교육과정 부재로 중구난방식 또 는 특정분야에 치우친 교육과정 운영 ⑧ 이론에 치우친 강의중심의 교육(실습과 교수법 부재) ⑨ 자격을 줄 정도의 역량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평가없이 자격증이 남발됨

2) 국가공인 NIE강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가 공인의 NIE강사 자격제도 도입에 공감하고 있었다. 앞에서 지적인 민간 NIE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내실화된 NIE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NIE강사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즉 NIE를 가르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NIE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자격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체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이 뒷받침된 공인NIE강사 자격증은 NIE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더불어 단순한 시험을 통한 NIE강사자격증 부여보다는 공신력있고 일원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가르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G)

NIE강사 자격제도를 통해 강사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강사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연수시스템과 이론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사C)

현재 본격적인 교재 및 NIE교육과정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NIE 강사 자격제도의 도입은 NIE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고, NIE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NIE의 경우 관련 조사를 보더라도 관심있는 학교별, 교사별, 혹은 교장의 교육정책별로 NIE의 실천 수준과 범위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자격제도의 도입은 NIE의 체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디어교육전공학자 D)

반면 국가공인으로 NIE강사자격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도 있었는데 현재 각 과목의 교사들이 NIE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NIE만 다루는 전문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된 후 자격제도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주도 기관주도의 여러 자격증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공인의 NIE강사자격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NIE강사/지도사의 자격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정부주도 혹은 기관주도의 여러 자격증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미디어교육학자 G)

개인적으로 국가공인으로 NIE 강사 자격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각 과목의 교사들이 NIE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NIE만 다루는 전문 강사/지도사가 어떤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 E)

효과 면에서는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로 말미암아 NIE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능력 있는 NIE강사를 확보하여 NIE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격제도의 도입은 중구난방 식으로 진행되던 NIE교육을 체계화하고 NIE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NIE수업은 강사의 자질에 따라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강사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수업의 질도 향상되고 강사수급도 원활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NIE수업을 개설할 때 믿을만한 자격단체에 강사를 부탁할 수 있어 NIE에 대한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인 A)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로 말미암아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NIE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인해 NIE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사 B)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6〉 국가공인 NIE강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필요성	기대효과
①공신력 있는 지도자양성시스템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NIE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②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체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이 뒷받침된 자격연수과정과 자격제도를 통해 NIE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 ③가르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가 필요 ④NIE강사의 실력편차를 줄이고, 능력 있는 NIE전문가 육성을 위해 필요. 또한 교육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	① NIE교육의 내실화, NIE교육방법의 발전, NIE 정책의 제도에 기여 ② 신뢰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NIE활성화, 전문성 확보의 토대 마련 ③ NIE교육이 필요한 곳에 안심하고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 ④ 자격증 발급을 위한 공신력 있는 연수과정이 개설되고 이론과 실기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과정 속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NIE강사가 양성되고 이를 통해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3. NIE강사의 자격역량

국가공인 NIE강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또는 역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학력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졸정도(유아교육관련 전공자는 초대졸)의 학력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력기준에 맞춰 학력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는데, 일부 전문가의 경우는 공인자격증의 취지에 맞춰 관심과 지도력이 있다면 학력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이 철폐되는 시대지만 대졸정도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E)

교육과학기술의 교사자격증 발급기준과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E)

관심과 지도력이 있다면 학력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C)

2) 적정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NIE강사양성과정을 어디에 개설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신력 있는 훈련기관(언론기관, 교육청연수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 둘 다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 세 가지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신문방송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 언론대학원 등 관련전공에서 개설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NIE강사양성과정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NIE자격검정위원회(NIE자격증과 연수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공신력있는 관리위원회를 지칭하는 말임)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대학의 신방과, 교육학과, 교육대학 등 NIE관련학과에서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C)

대학원과정에서 운영(언론대학원, 교육대학원)하는 대학부설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D)

NIE자격검정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훈련기관(언론기관, 교육청 연수기관, 평생교육원)에서 NIE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G)

3) 교육훈련기간 및 견습기간

교육훈련기간 및 견습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2010년까지 운영되었던 진로상담교사 양성과정에 준해 1년 2학기 18학점 정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직교사와 일반인, 교육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교육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그 기간 동안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도 뜻을 같이했다.

기본과정으로 신문이해교육과 교과신문활용교육, 심화과정으로 신문 학습자료 제작과 비판적 신문읽기, 실천과정으로 수업기술 이렇게 해서 최소한 180시간 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H)

현직교사와 일반인을 구분해서 교육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생각합니다. 현직교사는 60시간, 일반인 중 교육학 전공자는 100시간정도, 교육학 비전공자는 13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D)

견습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NIE강사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에 이르는 경로가 많지 않은 만큼 별도의 견습기간(인턴기간)을 두기보다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일정기간(4주정도)을 정해 교육실습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주로 기간의 길이보다는 실습이나 견습기간 동안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충분한 실습시간을 확보하여 수업참관과 보조교사로서의 수업참여, 그리고 교수자로서의 수업실습 등을 통해 NIE강사로서의 자격역량을 갖추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기존의 NIE 강사와 팀티칭 방식으로 견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교사들의 교생실습기간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사C)

한 학기 정도 NIE수업을 관찰하고 보조하는 방식으로 견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 수업일지 작성과 관찰한 수업의 목표, 수업방식, 학생결과물에 대한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디어교육학자A)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문가들의 의견
교육/훈련기간	<p>최소72시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1년 과정(진로상담교사의 경우처럼 18학점) 180시간(1급 정교사와 유사) 360시간 정도 현직교사(60시간)와 일반인 구분(교사자격증 취득여부) 교육학 전공자(100시간)와 비전공자(130-200시간) 구분 기본교육과정으로 신문이해교육과 교과신문활용교육 심화과정으로 신문학습자료 제작, 비판적 신문읽기 실전과정으로 수업기술 학기당 9학점씩, 1년 이상의 교육기간 교수법 및 NIE실습학점 필요</p>
견습기간	<p>교육기간 속에 견습을 넣는 것이 필요함. 참관과 참여, 수업실습을 통해 현장경험 익힘 수업일지 작성과 관찰한 수업의 목표, 방법, 수업방식, 학생 결과물 등에 대한 세미나 등이 필요함. 어떤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학교처럼 4주 정도) 경력에 따라 견습 유무 결정 실습과 견습 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팀티칭형태의 실습과 견습이 될 수 있도록</p>

4) 경력조건

NIE강사가 교사나 언론인과 같은 경력의 제약조건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약조건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사나 언론인들에 대해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수의견으로 NIE강사자격 부여는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만큼 일정이상 경력의 언론인이나 교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별한 제약조건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사나 언론인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대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인A)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언론인으로 제약조건을 두어야만 양질의 NIE강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사E)

구분	전문가들의 의견
경력조건	<p>제약조건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p> <p>관리기관의 구체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p> <p>다양성, 전문성, 경험이 필요한 만큼 교사나 언론인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p> <p>특정경력으로 제약하기보다는 우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p> <p>(교사나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 은 일정기준을 정해 이수과목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p>

5) NIE강사로서 요구되는 적성이나 능력

NIE강사로서 요구되는 적성 또는 능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사로서의 기본소양과 태도에 관한 부분(열정, 사명감, 상담능력, 소통능력, 대인관계기술 등)과 미디어 및 NIE관련 지식과 기능에 관한 부분(미디어와 NIE에 대한 이해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및 표현능력, 이해력),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부분(교수학습능력, 강의능력, 교수법, 평가능력, 수업자료 제작능력 등등)으로 나뉘어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자로서의 적성, 정의감, 책임감, 인간에 대한 이해, 언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C)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능력,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수업콘텐츠 선정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G)

NIE에 대한 이해, NIE지도능력, 학생이해와 상담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C)

정확한 언어표현력과 구사력, 학습자료제작능력, 신문 및 기타매체 친숙성, 지속적인 정보 검색 및 습득능력, 학습자 분석 및 수업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H)

교육적 마인드, 학습자료(신문)의 여과 및 가공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평가와 상담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언론인D)

전문가들이 제시한 세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문가들의 의견
NIE강사로서 요구되는 적성	교사로서의 기본소양 및 태도	<p>교육자로서의 적성, 정의감, 책임감</p> <p>교수자로서의 자질(열정적인 NIE지도자세)</p> <p>상담능력 및 상황대처능력</p> <p>탐구호기심, 지도에 대한 열정</p> <p>인간에 대한 애정(사랑)</p> <p>변화하는 흐름(교육과정)에 맞춰 노력하는 자세</p> <p>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분석능력</p> <p>대인관계 기술 - 학습자,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p> <p>교육적 소신(NIE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소양)</p>
	미디어 및 NIE관련 지식 및 기능	<p>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p> <p>다양한 매체활용능력</p> <p>언론, 신문에 대한 이해</p> <p>신문을 좋아하며,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p> <p>신문 기사를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토론하는 자질</p> <p>영상매체보다는 활자를 통한 독서를 하는 태도와 노력</p> <p>여러 신문을 보고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는 능력</p> <p>신문과 다양한 정보미디어를 즐겨 읽는 태도</p>

		신문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관점 지속적인 정보검색 및 습득능력 미디어를 논리적,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발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표현력(글은 물론 영상을 통한 표현력, 특히 논술 등 글쓰기 능력이 요구됨)
	수업관련지식 및 능력	새로운 교재와 교안을 개발해낼 수 있는 창의력 강의력(유머, 의사소통능력) 프레젠테이션 스킬 학습자 평가 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정확한 언어 표현능력 수업콘텐츠 선정능력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분석능력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및 돌발상황 대처능력 다양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관심과 발전 통합적 사고력 전달력(효율적인 교수능력의 확보를 위한 구두 표현력)

4. NIE강사 자격제도화를 위한 교육과정⁸⁾

전문가들은 공인 NIE강사 자격제도가 내실화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NIE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인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문제는 이 양성과정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인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NIE 강사양성과정의 목표

전문가들은 NIE강사양성과정의 전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과목들을 통해 달성

8) 이때의 교육과정이란 학습들이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하는 가를 의미하는 커리큘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NIE강사를 양성하기 교육프로그램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NIE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칭할 때는 강사양성과정으로, NIE강사 양성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과목들은 커리큘럼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해야 할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길러줌으로써 교수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교육과 NIE에 대한 이해를 통해 NIE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시킨다.
- 미디어교육과 NIE교수학습방법을 체득하여 NIE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 NIE수업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 종합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NIE관련 지식과 기능을 함양시킨다.
- 신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신문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신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신문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는 능력을 기른다.
- 다양한 NIE사례와 초중등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NIE 교육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제고시킨다.

2) NIE 강사양성과정의 커리큘럼

본 연구에서는 NIE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커리큘럼을 신문활용교육으로서의 NIE(학습에서의 활용)분야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NIE분야(민주시민으로서의 미디어/신문 활용)로 나누어 전문가들에 제시한 다음 가장 적합한 과목을 5개 고르도록 했다.⁹⁾ 덧붙여 추가로 NIE강사양성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과목은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했다.

9) 현재 NIE가 교과학습의 보완수단(신문활용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일환(비판적 신문읽기, 신문제작을 통한 창의적 표현)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해보았다.

전문가들은 신문활용교육으로서의 NIE분야에서는 NI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과목과 더불어 활용법이나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NIE를 학교수업과 연관지어 학제별, 영역별(과목별판)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과목들과 글쓰기, 독서활동과 관련된 과목들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NIE분야(민주시민으로서의 미디어/신문 활용)에서는 신문콘텐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과목과 신문제작을 통한 자기표현,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이해 등을 적합한 과목으로 뽑았다.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문을 미디어로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목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측면에서 NIE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다른 매체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3번째로 지정한 것은 의미있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보 획득과 생산도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신문 NIE 역할을 넘어 디지털 NIE에서는 다른 매체와의 관계 또는 다른 매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여러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7〉 NIE강사양성과정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할 가장 적합한 과목

분야	커리큘럼에 적합한 과목(빈도순위별 정리)
신문 활용 교육으로서의 NIE분야 (교과관련학습에서의 활용)	① NIE 이해 ② NIE 활용과 교육 방법 ③ 학제별 NIE 심화학습(초, 중, 고) ④ 영역별 NIE 심화 학습 (사회탐구, 수리, 과학 등) ⑤ NIE 독서활동 ⑥ NIE 글쓰기 (바른 문장과 문법 쓰기) ⑦ NIE 강사/지도사 역할 ⑧ NIE 효과 ⑨ NIE 논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서 NIE 분야	① 신문으로 읽는 세상 (신문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② 신문으로 표현하는 세상(신문제작을 통한 자기표현)

(민주시민으로서의 미디어/신문 활용)	③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이해(신문과 다른 매체의 관계 포함) ④ 미디어로서의 신문 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⑥ 디지털시대의 신문 ⑦ 신문과 저널리즘 ⑧ 신문과 윤리 ⑨ 인터넷에서 정보 획득과 생산 ⑩ 신문과 산업(광고/상업성) ⑪ 신문과 여론
-------------------------	--------------------------------------------------------------------------------------------------------------------------------------------------------------------

추가로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할 과목으로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과목(수업동기 유발법, 상담기법 등)들과 신문자체에 대한 과목들(구성요소, 편집, 신문과 세계, 정보매체로서의 신문 등), NIE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과목들(NIE교재분석, NIE평가방법, NIE교육과정론),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들(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미디어산업의 현황 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과목들(미디어 리터러시의 역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NIE교육자료제작 실습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직접 교육자료를 작성할 수 있어야 상황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사 A)

NIE를 미디어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이나 교재분석 등을 통해 전체적인 틀 속에서 NIE를 바라볼 수 있는 과목들이 필요합니다. (교사 G)

NIE와 교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목이나 창의적 교수법 등의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E)

NIE인 만큼 신문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신문일기쓰기, 스크랩하기, 신문만들기, 가시쓰기, 포트폴리오 만들기)들에 실습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과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C)

NIE교육평가방법, 학교교육과정의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신문으로 이해하는 세상’과 ‘신문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으로 읽는 세상’은 신문내용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문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신문 내용이 작성된 배경이나 맥락, 관점 등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교육학자A)

강의능력을 길러주는 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동기유발, 대상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방법 등 수업에 필요한 스킬들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임용시험 3차에 준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형태로 과목들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B)

전문가들이 제시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NIE 강사양성과정 커리큘럼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과목이나 내용

신문 활용 교육으로서의 NIE분야 (교과관련학습에서의 활용)	① NIE교육과정론, NIE교재 분석 ② NIE토론 및 진로교육 ③ 신문과 세계 ④ NIE수업지도안 작성연습 ⑤ NIE영어 ⑥ NIE평가방법 ⑦ 신문스크랩 방법 ⑧ 신문의 구성요소, 편집(신문자체에 대한 이해) ⑨ NIE를 통한 자기주도학습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서 NIE 분야 (민주시민으로서의 미디어/신문 활용)	① 미디어교육과 NIE의 역사 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정 ③ 미디어산업의 현황 및 트렌드 ④ 인터넷신문과 포털뉴스 ⑤ 신문과 광고 ⑥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⑦ 정보로서의 신문매체 ⑧ 사회참여도구로서의 미디어와 신문 ⑨ 대중문화론

기타	①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교사론 ② 대상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법 ③ 수업자료 작성법 ④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론 ⑤ 수업동기유발법(아이스브레이킹) ⑥ 상담기법 ⑦ 창의력과 인성교육
----	--------------------------------------------------------------------------------------------------------------------------

3) NIE 강사양성과정의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

공인NIE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체계화와 더불어 이 커리큘럼을 어떤 방식으로 교수학습하고 그 도달정도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강의와 토론수업은 물론, 수업시연,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업 등 다양한 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론과 실습을 겸한 수업을 진행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교수자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피드백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NIE교수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교수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NIE 강사양성과정의 수업방식은 훗날 수강자들이 교수자의 위치에 섰을 때 질 높은 NIE수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정선된 교수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의 및 토론,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업, 수업시연 및 피드백(교안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포함), 교육과정재구성방법, 수업자료 작성법, 교육실습 및 피드백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G)

사례중심, 체험위주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 수업모델등을 제시해주고 체득하도록 하는 수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모의수업을 통해 수업 중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법, 자신만의 노하우를 정리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A)

전문가들이 제시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NIE강사양성과정 교수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의, 토론, 제작실습, 수업시연, 교생실습 ② 디지털 매체를 포함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 ③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업 ④ 수업시연 및 피드백(교안작성포함) 교사 및 상호평가 ⑤ 대상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법, ⑥ 이론과 실습병행, 토의와 토론학습, 발표학습 ⑦ 실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첨삭지도 ⑧ 전문가협력 학습법 ⑨ 다양한 NIE사례(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수업
--------------------------------------	------------------------------------------------------------------------------------------------------------------------------------------------------------------------------------------------------------------------------------------------------------------------------------------------------------------------------------------------------

NIE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평가는 목표에의 도달도를 측정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민간NIE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과정에서는 일정시간 커리큘럼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측면이 강했다. 즉 강사의 수업능력과 실력을 평가해서 강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부장치를 가동하지 않음으로서 강사의 질 저하를 방조한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공인된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교육하는 양성과정이라면 시험검정전에 내부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를 충분히 평가하고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족하다면 관련과목 재이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지필평가와 더불어 수업시연(수업지도안 포함)과 포트폴리오 평가, 찬반토론을 통한 평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인성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였다. 더불어 학습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를 주문했으며, 평가의 척도나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학습자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목의 성격에 따라 지필시험, 실기시험, 수업시연, 포트폴리오 평가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F)

객관식 시험, 체크리스트 시험, 구술시험, 교안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수업 시연 및 수업에 대한 심층면접시험, 현장교육평가(교생실습중에 지도교사 평가), 수업 태도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평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G)

전문가들이 제시한 NIE강사 양성과정에서의 학습자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IE강사양성과정에서의 학습자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내용에 대한 지필평가(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논술식) ② 수업지도안 및 수업자료 제작능력 평가 ③ 수업시연에 대한 평가 ④ 수업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평가 ⑥ 포트폴리오 평가 ⑦ 구술 및 면접 평가 ⑧ 찬반토론을 통한 평가 ⑨ 인성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평가
--------------------------------	-----------------------------------------------------------------------------------------------------------------------------------------------------------------------------------------------------------------------------------------------------------------------------------------------

5. NIE 강사 자격 검정체계 및 사후관리

1) 검정주체

NIE 강사에 대한 국가 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정의 주체다. 자격제도가 사회에 정착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데 자격에 대한 검정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 담당할 때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다. 문제는 NIE 강사 자격을 검정하는

주체가 누구에게 독점할 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서로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NIE는 신문사, 학교 그리고 미디어 교육 시민단체라는 세 가지 관련 집단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문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부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NIE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학교의 교사들은 점차 증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교육방식으로서 NIE를 오래 전부터 주목해왔다. 미디어 교육 시민단체는 미디어가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면서 NIE를 미디어 관련 운동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NIE 강사 민간자격에 대한 검정주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적 이익 집단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로 강조했다.

특정신문사는 안됩니다. 신문협회 등이 운영하는 형태도 신문사의 경제적 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관이 신문발전기금이 나, 정부자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미디어교육학자G).

비영리 공공 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해야만 자격증의 위상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교사 C)

구체적인 검정의 주체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체로 선호했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신문협회를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문사가 검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일부 이견이 있었으며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이 검정의 주체가 되는 것에도 이견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검정을 통해 특정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가 공인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언론인 B)

신문사나 개인 사업자는 지양해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이나 신문협회, NIE협회 등 NIE에 자신의 색깔을 입히지 않을 수 있는 중도적인 단체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A).

자격 부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신문협회 또는 NIE지도자과정을 개설하는 신문사 등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언론인 C).

국가가 공인한다면 교과부나 문화부, 또는 광역시·도 교육청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교육학자 F).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신문협회가 주가 되어 별도의 NIE 전문가 양성기관을 두어 자격을 부여하게 해야 합니다. 교과부나 각 시도의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교사 F).

전문가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신문협회가 검정의 주체가 되더라도 별도의 기관을 두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칭)NIE자격검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NIE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오랜 교육경험을 가진 기관이 중심이 된 NIE자격검정위원회(가칭)이 별도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학회나 교사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 G).

2)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NIE 강사 자격제도에서 집단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강사 자격의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NIE 강사와 관련하여 특정 집단이 주도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언론인을 NIE 강사 자격을 부여시 우대할 경우, NIE 강사의 상당 부분은 언론인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 교사에게 NIE 강사 자격을 획득하는데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면 NIE 강사는 곧 교사의 보완적인 자격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분야로 자격을 한정할 경우 민간 자격은 그 획득에 대한 조건이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전문가 대부분은 교사나 언론기관 종사자가 NIE 강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심지어는 교사자격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응시하도록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나 언론인에게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교사나 언론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다. 교사와 언론인만을 공인 NIE강사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이 풍부하여 실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봅니다. 학력이 철폐되는 시대지만 대졸 정도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조건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언론인으로 제약조건이 있는 것이 양질의 NIE강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E)

NIE 자격증이 일종의 직업선택의 보조수단으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므로 교사자격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종의 파트타임 직업으로 NIE 강사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전체 확대보다는 우선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교사 및 언론인은 함께 묶어서 갈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교육일선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본훈련이나 직무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교사의 경우, NIE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자격증 취득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인과 교사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언론인의 경우 교육과정, 교수법 등이, 교사의 경우, 언론 전반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

다. (미디어교육학자E)

대학 졸업 후 교사나 언론인이 되었을 때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만 발급합니다. (언론인B)

NIE가 단순히 교양형 교육프로그램이라면 대졸이라는 자격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교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 언론인의 자격의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사, 언론인이 아닌 분들의 참여를 위해 교육대학원의 특수 학위 과정, 언론진흥재단의 장기 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 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사H)

저는 교사 및 언론인에 우선적으로 자격 부여에 찬성합니다. 교사들의 경우 신문자체에 대한 이해교육과 각자의 전공으로 활용한 학습자료 제작 및 주제학습, 비판적 신문 읽기 과정이 60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의 경우, 신문 학습자료 제작, 주제학습, 효과적인 수업기술(학습자 분석, 동기유발, 수업발문) 등 1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D)

전문가들은 교사라고 하여 미디어 강사로서 교육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며, 언론인은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직 언론인이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실제 NIE 강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교사나 언론인에게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다.

NIE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NIE가 신문사들이나 미디어의 논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신문

에 객관적인 대상이 교육을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 학자G)

공인 NIE 강사 자격제도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교사 및 언론인에 국한하거나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교사는 NIE 강사 자격이 없어도 학교에서 NIE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NIE 연수만 받아도 그래서 굳이 NIE 강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NIE 강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 별도의 NIE 과목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에 대하여 우선 배려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언론인들에 대한 연수를 해 보니 어른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도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연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NIE 강사로서의 입문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교사F)

일부 전문가들은 교사 또는 언론인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신에 이러한 분야가 NIE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정 과정에서 우대를 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응시 자격에 대한 특수한 조건을 두지 않지만 검정에 응하려면 누구나 적합한 수준의 NIE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사 또는 언론인에게는 그 이수 시간을 일정 정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언론인은 신문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그 분야에 대한 이수 프로그램은 면제하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신문과 미디어에 대한 교육만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NIE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는 노하우가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이수 시간을 일정 정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취지를 전문가들이 심층인터뷰를 통해 피력했다.

NIE 지도와 관련된 대학의 학과 졸업(예: 신문방송학과,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등) 또는 일정 기간 관련 분야 종사 경력(언론 분야, 교육 분야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NIE 지도를 위한 일정 기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합니다. 교사 및 언론인에 국한하

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실제로는 언론인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고, NIE 강사의 경우 언론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인의 직무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 NIE 강사의 직무와는 관련이 부족한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만이 아니라 관련 교육 분야의 종사자들도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NIE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디어교육 학자A)

일정기간(72시간)이상 NIE지도자과정 수료 자(단 실습기간을 두는 것 필요)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우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 자격을 가져야 하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력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직 언론인을 각 학교에 배정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사든 언론인이든 전문과정의 일정 자격연수를 거치고 검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언론인C)

교사나 언론인이 적합한 가격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교육 업종에서 종사하는 적정한 인물도 많을 것이고 사설강의를 전문적으로 한 경험자도 많을 것입니다. 자격을 특정 계층으로 국한하거나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전달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스킬과 일방적인 전달방식이나 훈계조의 교육방식 아닌 상호 소통하는 수업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육기간은 대상층에 따라 1~3개월로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교육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E)

3) 평가과목과 직무능력

NIE 강사로서 자격을 검정하기 위해 어떠한 직무 능력 수준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교직 수행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특정 과목과 NIE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분야 지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직과 관련해서는 신문활용교육 측면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과목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NIE 이해, NIE 강사/지도사 역할, NIE 활용과 교육 방법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NIE 실기 과목으로는 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즉 국어 과목과의 연계 학습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NIE 이론 및 실기, 국어과의 기초기본학습 지도 방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NIE 이론 및 실기, 교수 방법(실습 포함), 국어과의 기초기본학습 지도 방법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교사F)

자격검정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는 ① NIE 이해, ② NIE 강사/지도사 역할, ③ NIE 활용과 교육 방법, ④ NIE 효과, ⑤ NIE 독서활동, ⑥ NIE 글쓰기(바른 문장과 문법 쓰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E)

자격검정을 위한 주요 평가과목 또는 확인해야 할 직무 능력으로는 첫째, 신문제작과정, 신문발간, 기사작성 등의 기본적인 신문이해교육 둘째,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신문을 활용하여 배우는 신문활용교육 셋째, 비판적 신문 읽기 넷째, 학습자 분석 및 효과적인 수업기술 등입니다. (교사H)

NIE의 이해, 미디어로서의 신문 이해(신문개론,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 포함), 신문 읽기(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읽기), 신문 제작, 학교교육과정

의 이해, 교안작성방법, 교수학습방법과 수업 운영, 평가의 이해 등을
검정시 평가해야 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A)

미디어로서의 신문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신문을 균형적으
로 바라볼 수 있어야 교육 자료를 만들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논평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 구성, 자료 제작 및 실제 수업 진행의 실습 과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A)

이와 같은 응답은 전문가들 역시 NIE를 신문활용교육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화를 유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로서 NIE가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없는 분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서 NIE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서 NIE 강사가 갖춰야 할 능력을 질문하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제시했다.

공동체 삶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자신의
사고력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언론
인 A)

NIE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수업과, 민주주의에서 사회참여도구로서의
미디어교육으로서의 신문교육이 현재 제시한 내용으로는 합치될 수 없는
교육안입니다(미디어교육학자 G).

현재 한국의 NIE 교육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아 별개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하고 지적하면 동일 사건,
이슈에 대한 신문사별 다른 논조와 기사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능력, 인터넷
신문의 운영방식, 게이트키퍼, 상업성, 저널리즘 역할 등을 가르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 C)

신문으로 어떠한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빈부격차, 남북 갈등, 동서 간극 등 다양한 주제로 활용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언론인 B).

4) 평가체계

평가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론과 실기 평가를 병행해야 하는 것을 공히 지적했다. 합격 기준으로는 대부분 70점을 제시했으나, 과목별 과락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됐다.

검정요소의 교육과정을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하여 각 항목의 20문항씩 100문제를 출제하여 과락(40점이하)없이 평균 70점을 자격증 취득의 최소 점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E)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문제를 출제하고 자격 인증을 위한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인C)

이론은 서술형, 실기 그리고 국어과 기초기본 학습지도 방법은 서술형 및 실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론 30%, 실기 30%, 국어지도 20%, 실습 20% 등을 평가 항목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기는 NIE 문제에 대하여 지도안과 학습지 등을 성하는 것을 말하고, 실습은 학생들을 실제로 지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위 4영역 중 과락을 정하고, 각 평가 과목에서 60점이 안 되면 과락을 부여합니다. 80점 이상인 자에게 NIE 지도 강사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교사F)

평가는 필기고사와 실기평가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는 신문과 관련된 기본구성 요소 및 신문 활용방법, 글쓰기 능력 등을 평가하고, 실기평가는 교육안 작성 및 시연(지도능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언론인D)

전문가들은 평가체계로서 실기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기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교수법으로서 NIE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가 주를 이루었다. 실제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학습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공인 NIE 강사라면 가르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공인 NIE 강사 자격검정은 실기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반드시 교생실습을 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스킬도 또한 필요합니다. 교수학습방법을 공인 NIE 강사 자격검정을 공부하면서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자연스러운 실기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E)

당연히 필요합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실제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사 자격증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롭게 시행되는지를 감안할 때, 적당한 필기시험만으로 강사를 배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운전면허증을 필기시험만 보고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습평가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NIE는 과목과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 영역에서 다룰 것인지를 감안하여 실습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논술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교육학자E)

전문가들이 실기평가의 대상으로 주로 지적한 능력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수방법을 갖추고 있으나, 나름대로 학습 과정안을 만들 수 있고 관련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실제로 평가하여 적절한 수준에 이른 사람을 NIE 강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기 과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기에는 크게 지도안을 짜는 활동, 학습지를 만드는 활동과 학생들을 실제 지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과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어의 기초: 문단을 바르게 구성하는지, 글씨를 바르게 쓰는지. 맞춤법은 바르게 알고 있는지의 평가(이는 NIE 강사 중에 보면 지도사의 글씨가 바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강사의 글씨가 바르지 않을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② 교수방법 :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는지의 평가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언론인들이 NIE 강사가 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지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도 합니다. ③ NIE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능력을 실기로 평가해야 한다. ④ 창의력 학습지, 비판적 사고력 학습지, 글쓰기 학습지, 논술 학습지 등의 학습지 제작 능력도 평가해야 합니다. ⑤ 포트폴리오 작성 : 연수 시작 때 주제를 주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게 합니다. (교사F)

실기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대상 과목은 학습자료 제작 및 수업 시연 등입니다. 실제 NIE는 교과서를 만들어도 최신의 신문들이 활용되면, NIE 지도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수학습과정이 정밀하게 구현된 학습자료 제작을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 수업 시연상황을 제시하여 수업에서 수업기술 측면도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H)

5) 전문 교육프로그램

전문 교육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전문들에게 물어봤다. 먼저 검정주체와 마찬가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처럼 공공기관이 담당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검정주체와 교육기관이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허락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을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검정주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응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협회, 각 신문사, 교육연수원이 교육기관을 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교육학자F)

교육 주체와 검증 주체가 분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격 검정과 관련된 교육 과정의 연계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기관이 자격검정을 교육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육 수업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격검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D)

전문가들은 검정 주체와 달리 교육기관은 언론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문사는 이미 NIE 교육을 담당한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검정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별도로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언론기관에서 1년 과정(교사의 진로상담교사 자격 취득 준용, 대학원 1년과정)을 개설합니다. (교사E)

교육기관은 경험이 풍부한 언론기관이 했으면 합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사나 언론인의 경우 대학원 1년 과정의 진로상담교사처럼 교육과정을 짜서 이수하도록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① NIE 이해, ② NIE 강사/지도사 역할, ③ NIE 활용과 교육 방법, ④ NIE 효과, ⑤ NIE

독서활동 등입니다. (언론인A)

대학에서 전문전공을 한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다른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신문사나 언론진흥재단 신문협회를 들 수 있겠지요. 본 강원일보에서는 강원NIE 지도자 과정(60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수료증을 발급한 휴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교육과정과 함께 72시간 정도는 이수해야한다고 봅니다. (언론인C)

교육기관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일하고 일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현재 NIE를 실시하는 기관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다른 만큼 자격 검정에 맞도록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재 개발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검정 주체가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기관이 어디이든 같은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현재 NIE를 실시하는 기관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인증된 교육과정과 함께 지도교재 발행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 G)

교육 프로그램을 통일하는 것이 국가 공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 협회 등 우후죽순으로 있는 양성기관을 통합하여 교육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언론인B)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180시간을 주로 언급했다. 이는 교사가 주말에 집중 교육을 6개월 정도는 받아야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고려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말에 8시간씩 23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실기과목으로 교수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며 심화과정으로 신문 학습자료 만들기과 신문물을 비판적으로 읽기와 같은 과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정 교육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최소로 교육 훈련을 받는 기간을 360시간 정도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은행제처럼 운영하면 효과적인 NIE 지도사를 배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 기관에서 중심적인 교육을 하고 일부 실습 등은 외부 기관에 맡겨도 좋을듯 합니다. (교사F)

기본과정으로 신문이해교육과 교과 신문활용 교육, 심화과정으로 신문 학습자료 제작, 비판적 신문읽기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실전과정으로 수업기술 등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 연수는 3단계 연수는 최소 180시간 이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H)

교사 자격을 갖는 사람의 경우, 신문의 이해, 신문을 수업에 이용하는 수업동영상 등 1급 정교사 연수에 준하는 시간인 18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언론인 종사자 역시, 수업시연,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노하우 등, 1급 정교사 연수에 준하는 시간인 180시간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사B)

현직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으려면 교육 기간이 3~4개월 정도(100시간 이내)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성대에서 96시간 논술 과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주 1회 3시간씩 6개월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버겁더라 고요. 교육 내용에는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기, 수업자료제작, 교육 실습” 3가지가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도 교사나 언론인 중에는 사고가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객관적인 자료 제작이 안 된다면 수업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전문성은 있다고 해도 결국 NIE의 성공은 효과적인 수업에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도 꼭 학습해야할 부분입니다. (교사A)

6) 사회적 보상과 사후관리

NIE 강사가 국가 공인 민간자격이 되고 그것이 NIE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NIE 강사에 대한 공신력이 사회에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간이 부여하는 자격일지라도 그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존재해야 하며, 특히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사회적인 대우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우가 다르다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사회가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격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하며 심지어 중요한 직업인으로서 해당 자격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적 특별대우가 발생하는 1차적 조건은 국가 공인이 이루어졌느냐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민간자격은 국가나 사회에서 특별한 우대를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일 경우 필요에 따라 국가가 특별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국가가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자연스럽게 사회에서도 특별한 우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NIE 강사 자격검정이 정착되고 이것이 NIE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의 민간자격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국가 또는 사회에서 해당 자격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 또는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NIE 강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정체계의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민간자격을 획득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신력을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 획득자의 경력개발을 유도하지 못하면 사회적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관이 NIE 자격검정을 담당할 경우, 그 기관은 자격은 엄정히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자격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과 보수교육을 해줘야 한다. 경력개발이라 함은 사회적 전문인 또는 전문인으로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보수교육은 자격을 한번 검정을 받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재교육 또는 검정의 박탈 등을 명시해 놓는 것이다.

사회적 보상은 민간 자격제도가 사회에서 계속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격 검정을 주는 것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자격증을 확보한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후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증 갱신은 3년 또는 5년을 주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기적인 스터디 그룹을 유도하거나, 워크숍과 집체 보수교육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차 연수만으로 자격증 제도를 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격증 제도보다, 재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재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하고, 강사자의 강의평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교육학자G)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시, 자격증 시험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다른 자격증처럼), 일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추후 검증이 철저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교육학자E)

5년마다 추가 교육을 받아서 일정한 연수 학점이나 점수가 되면 자격을 갱신하면 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현직과 비현직을 구별하여 현직은 5년마다 자격증 갱신을 하고 비현직은 3년마다 연수를 받아 갱신합니다. (교사E)

추가교육은 1년에 1회 정도 통합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갱신은 4년에 1회 정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력개발은 4년 동안 자료제작 및 활동실적 평가로 차후 자격갱신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H)

정기적 스터디 모임, 보수교육, 워크숍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언론인C)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등급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자격증을 2가지로 나누어서 자격을 확보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자격을 2개 정도로 나누어 2급 지도사, 1급 지도사로 구분한다. 2급 지도사가 2년 이상 지도 경력을 가지면 1급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게 한다. 지도 경력없이 3년 정도 지나면 자격을 박탈합니다.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다시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획득하게 한다. NIE 지도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1년에 3시간 정도 이상 연수를 받게 합니다. 자격을 유아 초등지도사와 중등지도사로 나누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교사F)

자격증에 1급, 2급.. 이런 식으로 레벨을 두어서 기본 과정을 마치고 얼마 이상이 지나야 재교육 차원으로 다음 레벨의 교육을 받고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사A)

사회적 보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NIE 강사 자격증을 받는다고 하여 언론인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특별한 혜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교사로서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일정 정도 승진 포인트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나머지 NIE 강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하고 이것이 사회적 경력개발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6.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요인

1) NIE 강사 육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NIE 교육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 재원을 활용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문사가 점차 신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잠재적인 독자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신문을 활용한 부가사업으로서 NIE 교육에 관심을 두면서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NIE와 미디어 교육의 확장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NIE와 미디어교육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NIE 강사에 대한 국가 공인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차원에서 NIE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사회적 수렴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분명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NIE를 통해 어떠한 내용을 학생과 예비 인력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교육시킬 수 있는 NIE 강사의 능력과 최소한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격 검증체계가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NIE 강사는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의 변화, 미디어, 신문 그리고 사회 변화 속에서 NIE 교육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NIE의 질과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 중추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NIE 강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NIE 강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능력과 자격일 것이다.

NIE 강사 육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NIE의 사회적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NIE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앞에서 검토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NIE 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국가가 자격을 공인해야 할 NIE 강사의 자격과 능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NIE교육이 관계하고 있는 영역은 학교 및 사회 교육 각 영역에 퍼져 있다. 특정한 어느 하나만을 정해서 NIE 강사가

교육하는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넓다. 교육형태도 학교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활동양태는 NIE 교육이 갖는 간학제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NIE 강사의 육성과 자격 검정의 방안은 지금 현재 NIE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를 어떻게 수용하면서 각 영역과 유기적 관계를 마련해야 할 것인가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9> NIE 관련 분야의 교육과 교·강사의 현황

구분	세부 영역	시행 형태	교/강사 형태
학교	유치원		유치원 교사
	초중등학교	교과와 연계	학교 교사
		독립교과	
		재량 및 특별활동	
		방과후 활동	
	대학	신문방송, 사범대, 교대 등 관련학과	교 강사
	대학원		
사회	보육시설	유아	보육교사
	미디어센터	다양함	
	청소년 관련시설	청소년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관련시설	이주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사
	공공문화시설	다양함	학예사, 사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평생교육관련시설	다양함	평생교육사
	시민사회단체	다양함	
	공적 기관	학교 교사 등	
민간	신문사	전문성, 사회적 책임	NIE 강사
	민간직업교육	직업 교육	학원 강사
	일반학원교육	학습지도(신문활용)	학습지도사

NIE 강사(?)

NIE 강사의 국가자격 인증제도 혹은 육성정책은 NIE교육의 대상과 범위, 개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NIE 강사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NIE 강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측정 기준과 강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IE의 개념과 사회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NIE 강사 국가자격 인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NIE 강사가 정착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과연 NIE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인증제라는 것이 어떤 역할과 유효성을 가질 것인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는 현장성을 결여하기 쉽고, 사회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NIE 강사에 대한 인증이 불확실성만 양산시켜 오히려 NIE 강사로서 능력 개발의 유인 효과마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NIE 강사 국가자격 인증의 도입을 위해서는 NIE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이 정해져야 하며, 그에 따라 강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표준 능력을 정해야 하고, 직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과 같은 다각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NIE 강사의 능력 요건

NIE 강사라고 했을 때, 강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NIE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르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국가자격을 인증하는 것은 NIE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정하는 것이며, 그 능력에 부합하는 사람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가 NIE로 가르치는 내용을 정의해주는 것도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NIE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하나는 신문을 활용한 학교 교육으로서 교수법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미디어 교육에 기초한 것으로 신문을 통해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개인을 사회화하는 역할이다. 전자는 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함양이 가능하도록

록 하는 차원에서 수단적 의미가 강하다. 반면 후자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에 대해 접근하고 이해, 분석, 창조, 분석하는 능력을 학생과 일반인이 갖도록 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NIE를 수행하는 강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은 크게 두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로서 능력이다. 교수법으로 NIE를 활용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능력을 전제로 하며 그 능력에 기초하여 신문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차원은 신문에 기초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미디어에 대한 읽기 능력(이해, 분석, 평가), 쓰기 능력(미디어 창조-생산, 표현), 나누기(접근, 소통-커뮤니케이션) 능력이며, 이것을 교육 참여자와 함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두 가지를 고려할 때 NIE 강사로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은 교육과 미디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한 능력은 인간에 대한 이해, 교육 참여자와 교육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 측면에서는 신문에 대한 지식과 신문이 생산하는 텍스트를 통해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조건 등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두 차원에서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NIE 강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 능력 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판단하는가 여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정하면 NIE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부족해질 수 있고 바람직하고 질 좋은 NIE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반대로 조건을 너무 약화시킨다면 NIE 강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에 비해 실제 얻게 되는 효용이 감소하면서 NIE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또한 NIE 강사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지속되지 못해 국가자격 인증제도가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NIE 활성화가 가능한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국가자격 인증제로서 최소한의 요건

국가자격 인증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국가가 직접 어떠한 자격을 인증해주는 방식이다. 변호사, 교사와 같은 자격은 국가가 직접 그 자격을 인증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자격을 인증하지만 그 자격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국가가 효력을 승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국가 공인 민간자격검정이라 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는 ‘국가자격’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후자는 ‘민간자격’으로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라고 규정돼 있다(제2조의4호와 5호).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자격 관련법령이 부여한 분야로 제한된다(제11조). 그렇지만 민간자격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격을 제외하고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검정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직업 및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에서 수요가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1997년 3월에 ‘민간자격기본법’을 제정하고 유망 직종과 관련한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8개 정부부처 38개 기관이 62개의 국가 공인 민간자격검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기재부의 신용관리사, 행안부의 정보시스템관리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후 민간자격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자격기본법에 통합되어 국가자격과 함께 규유되도록 개편됐다.

국가 공인의 민간자격검정을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격기본법은 국가자격이든 민간자격이든 자격제도 관리와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자격체계와 부합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과정과 연계돼야 한다. 넷째, 산업계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다섯째, 평생학습,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제3조). 그리고 자격검증을 위한 1차적 조건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직무의 범위·내용·수준, ②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③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민간자격 공인기준이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격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민간자격과 그 공인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의 신설과 등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첫째,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둘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 셋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넷째, 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이다. 그리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도록 해놓았다(제17조). 마지막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산업계 수요, 국가자격과의 중복여부, 국내외 호환, 통용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기관에 한해 국가 신청과 심사를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해 놓았다. 이처럼 자격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민간자격검정 체계 신설 시 요구되는 단계와 조건을 정리하면 <표20>와 같다.

자격기본법이 국가 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NIE 강사를 육성하고 이를 위해 민간자격 인증 또는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 제29조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로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을 규정해 놓고 언론진흥기금을 통한 사업의 범위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그리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사업 지원 등과 함께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28조를 통해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으로 명시해 놓았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정부가 NIE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언론진흥 재단이 NIE 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 공인 민간자격 신설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0〉 국가 공인 민간자격검정 체계의 도입 단계와 조건

단 계	내 용
자격 수요조사	산업계의 요구나 수요, 국가자격과의 중복여부 확인 취업의 가능성, 노동시장의 규모
직무분석	해당자격 직무분석, 자격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 추출
종목/등급/응시자격 결정	자격종목설정→등급기준 설정(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의 호환, 학점인정고려 다단계로 구조화 1~5급)→ 응시자격, 경력인정 준거 마련
검정기준의 설정기준	직무수행능력을 지식과 기능으로 구분, 등급별 검정 기준마련
검정과목 및 방법결정	현장적합성 및 타당성,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자격과 학습과정의 연계	훈련교육과정과 자격검정과목의 연계성을 고려함
학습과정의 개발지원	학습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학습과정개발지원
자격검정	자격시험의 출제범위와 방식결정
자격취득자관리	보수교육의 필요성, 준거마련, 취득자정보관리, 기업체 정보제공
취업알선	취업지도 및 정보제공, 취업연계활동 전개
보수교육수요조사, 요청	능력유지향상관련 보수교육요청, 지원

4) 민간자격 검정체계

(1) 검증 및 인증 주체

민간자격의 검정과 인증 절차는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이 검정과 인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격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표준을 인증하는 것은 공신력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기관과 학교, 개별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교사 양성 정책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NIE 강사에 대한 일정한 표준을 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교육 현장의 요구,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강사 자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NIE의 목표와 원리,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만드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이고, 그 교육과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과 사회상을 만드는 일이며, 교육이 가져야할 공공적 성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NIE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즉 NIE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러 시행주체가 NIE 강사 검정체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NIE 강사에 대한 민간자격에 대해 공히 인정하고 이를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주체가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NIE 민간자격 검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NIE 또는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담당하면서도 여러 NIE 시행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 기관인 만큼 공신력 있는 검정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미디어교육 또는 NIE 교육과 관련한 공공기관 및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NIE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공청회, 연구 등을 토대로 강사 검정에 관한 기준을 확립,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한편, 민간자격검정의 주체가 되는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교육기관과 검정기관의 관계이다. 교육과 검정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기관이 아예 따로 활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곧 검정기관이 될 경우 그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투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검정기관과 교육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교육기관이 곧 검정기관이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2) 검정 및 인증의 절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자격 검정체계에서 그 자격을 인증해주는 절차와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그 기본적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증이 사회적 약속으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 기준과 검정위원 선정, 출제와 채점 과정, 사전 정보 제공 및 결과에 대한 공시 등이 엄격한 절차 속에 시행되고, 공정한 절차가 되어야만 인증의 공신력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인증 절차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주체와 검정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격 검정과 관련된 교육 과정의 연계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종목에 있는 것은 56.8%, 일부 종목에 있는 경우 21.6%) 이는 상당수의 기관이 자격검정을 교육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교육 수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격검정을 이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격 검정 주체가 교재를 직접 만들거나, 특정업체와 연계되어 출판하는 등 자격 검정의 공신력 확보보다 영리추구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영리추구에 몰입하는 행위는 허위나 과장 광고를 유발하며, 그로 인한 상업적 이윤획득이 능력지표와 표준 개발이라는 자격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교육 주체(이수증 부여)와 검정 주체(자격증 부여)의 분리는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일이며, 교육의 상호 평가와 다양성을 보장해 낼 수 있을 것이다.

NIE 강사 자격검증에서는 교육과 검정 주체의 분리 이외에 특히, 자격에 대한 검정 방법이 다각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검정 방법이 암기식, 기능 위주의 검정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있느냐와 기능을 얼마나 숙련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평가 방법이다. 하지만 NIE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기능 전수의 의미가 아니라, 신문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 대한 총체적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력과 인식, 현실에서 경험하는 느끼는 감정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NIE 강사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식과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철학과 교육 현장에 따른 적응 능력,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타 자격검정의 암기식, 기능위주의 검정방법을 넘어서 면접이나 능력 지표를 볼 수 있는 과제 수행, 제출 등 검정 방법의 다양화, 다각화가 필요하다.

NIE 강사를 일괄적으로 자격 검정과 부여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교사와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등 자격 신청자의 조건에 맞게 검정 절차와 과정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신규 교사 자격 검정과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 수행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능력을 얻고 이를 검정 받는 과정으로서 자격의 기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 NIE 강사 자격제도 도입 방안

1) NIE강사 직무분석

(1) NIE강사의 직무분석

앞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NIE 수업을 담당할 NIE강사의 직무를 분석하면 <표21>와 같다. 요약하자면 미디어 전반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NIE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여 NIE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NIE강사의 직무이다.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수자로서의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디지털 NIE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미디어교육과 의사소통능력 이해하기 영역이다. 미디어교육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리터러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학습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적 NIE를 교육하면서 사회적, 공적 이슈와 토론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이해하기는 사회적, 공적 영역에 민주시민으로서 적절히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갖춰져야 한다. 이는 학제별 NIE가 추진되면서 관련된 사회적, 공적 이슈에 대한 민주적 시민으로서 참여활동에 대한 교육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표 21〉 NIE 강사 직무분석

책무	작업				
A 미디어	A-1 커뮤니케이션	A-2 미디어환경 이해하기	A-3 신문 이해하기	A-4 미디어교육 이해하기	A-5
B NIE	B-1 NIE 이해	B-2 NIE 교육과정 이해	B-3 교과중심 ¹⁰⁾ NIE 이해하기	B-4 주제중심 ¹¹⁾ NIE 이해하기	B-5 학제별 NIE 이해하기
C 교수학습	C-1 학습자특성 파악하기	C-2 교수매체 활용하기	C-3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기	C-4 NIE 교수학습	C-5 교수학습 평가하기

(2) NIE강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앞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NIE 수업을 담당할 NIE강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NIE 역할을 고려할 때 과거 다르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적성은 소통능력이며, 이를 기초로 하는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표현능력, 사회적 참여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NIE강사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 교과중심NIE란 현행학교교육과정을 토대로 NIE를 전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11) 주제중심NIE란 주제에 따라 수업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NIE를 말한다. 글쓰기(논술), 신문만들기(가족,학급,독서), 토론수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22〉 NIE 강사 직무조건

구분	최소한의 조건
① 학력	대졸이상
② 적정 교육/훈련기관	1) 대학이나 대학원의 전공학과 및 부설 전문교육기관 2) 자격검정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언론유관기관, 교육청 연수원, 평생교육원 등
③ 교육/훈련 기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한 학기당 9학점 이상(1년 18학점)
④ 실습기간	교육실습 최소 4주 이상
⑤ 적성	교사로서의 기본소양과 태도(열정, 사명감, 상담능력, 소통능력, 대인관계기술 등)를 지닌사람. 미디어 및 NIE관련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미디어와 NIE에 대한 이해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및 표현능력, 이해력) 수업준비와 진행능력을 갖춘 사람(교수학습능력, 강의능력, 교수법, 평가능력, 수업자료 제작능력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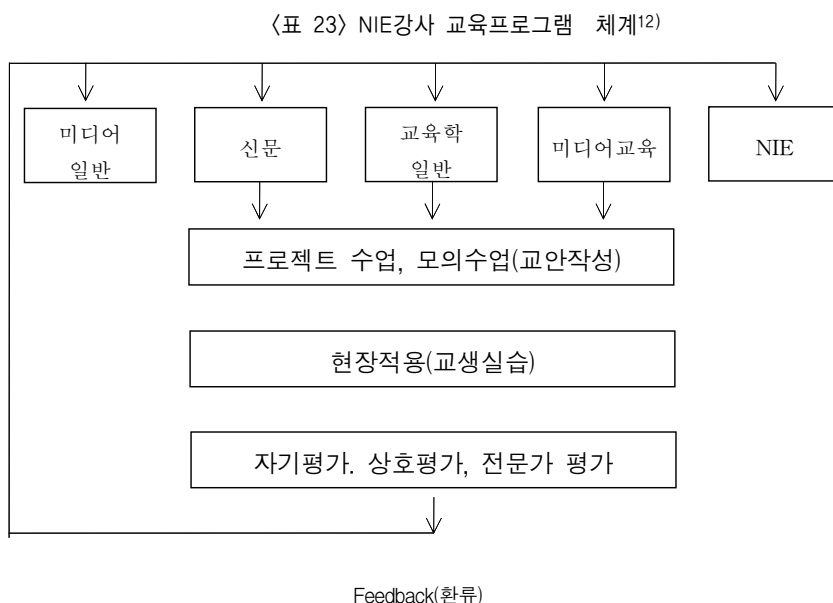
2. NIE 강사 교육프로그램 및 검정체계

1) NIE강사 교육 프로그램

공신력 있는 NIE양성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문과 NIE에 대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과 더불어 미디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과 교육학 일반,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익힐 수 있는 과목들이 함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시대에 NIE 역할로 중요하게 부상되는 사회참여 도구로서 신문과 여타 미디어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여 사회적, 공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 NIE강사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NIE강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데 치중하면 실제 이를 전달하는 교수법이 부족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때 NIE강사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와 과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NIE강사의 피드백 교육시스템을 도식화 한 것이다. 프로젝트 수업과 모의수업을 통해 자신이 NIE강사로서 적절한 교수법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생실습과 마찬가지로 강사자격을 최적 획득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최상희(2003)의 책 참고.

〈표 24〉 NIE강사 교육 프로그램

조직요소	과목 또는 다루어야 할 내용
미디어일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대중문화론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소셜미디어
신문	신문과 세계(신문으로 읽는 세상) 신문에 대한 이해(특징, 종류, 구성요소, 편집, 게이트키퍼, 역사) 신문과 광고(산업, 상업성) 신문과 윤리 정보와 미디어로서의 신문 언론과 신문 인터넷신문과 포털뉴스 신문과 저널리즘
교육학	교사의 자질과 역할(교사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수업자료 제작법 수업동기유발법 상담기법(발달심리학 포함) 창의력과 인성교육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교육공학, 교육평가 협동학습의 이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의 이해(역사, 교육과정) 미디어리터러시교육으로서의 NIE 사회참여도구로서의 미디어와 신문 미디어읽기(비판적 이해)와 미디어쓰기(창의적 표현)
NIE	NIE의 이해(개념, 역사, 유형 포함) NIE 교육과정론 NIE 교재 및 교안, 수업사례분석 NIE 교수방법(토론) 학제별 NIE 심화학습 영역별(과목별) NIE 심화학습(NIE와 영어포함) NIE와 독서활동 NIE와 글짓기, 논술 NIE와 신문제작 NIE 수업지도안 작성연습 NIE와 평가
실습 및 평가관련	프로젝트수업, 교안작성 및 수업시연, 수업평가기법, 교생실습, 전문가 평가 및 피드백

2) NIE 강사 검정체계 도입 방안

(1) 자격명칭과 응시자격

자격의 명칭은 ‘NIE 강사’로 규정한다. 교사로 규정할 경우 학교 교육에 한정될 수 있으며 ‘NIE 전문지도사’는 NIE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분야로 한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NIE 강사는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으면서도 사회 일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NIE 교육과 미디어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시자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국가 공인 민간자격이 될 수 있으려면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특정한 학력인 경우 그에 대한 교육에서 우대를 해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자와 미디어(신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자에 대해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전반적으로 NIE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에 NIE 강사로서 능력을 확보하는 최소한 교육 과정 이수 또는 시험 과정 면제를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①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성인으로서 NIE 강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NIE 강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우대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NIE 강사 전문 프로그램 이수를 일정 부분 면제할 수 있다.
 - 미디어 및 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NIE교육 또는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교육(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 교사 국가자격증 소지한 자
 - 신문 등 미디어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우대조건 : 우대자격에 따른 전문 교육프로그램 면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디어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미디어 관련 과목 2/3를 면제한다.
 - 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교육 관련 과목 2/3를 면제한다.
 - NIE교육 또는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교육(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는 NIE 관련 과목 1/2를 면제한다.
 - 교사 국가자격증 소지한 자는 교육 관련 과목을 면제한다.

- 신문 등 미디어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미디어 관련 과목을 면제한다.

NIE 강사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디어 및 교육 관련학과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5〉 미디어 및 교육 관련학과 예시

분 야	해 당 학 과
신문	신문방송학과, 신문학과
언론	언론광고학과, 언론학과, 언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	광고학과, 광고홍보학과, 매체홍보학과, 광고디자인학과
영상	언론영상학과, 정보방송학과, 공연영상학과, 다중매체영상학과, 방송영상학과, 영상미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영상연출학과, 영상학과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예술학과, 게임애니메이션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만화학과
멀티미디어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아트학과, 멀티미디어창작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인터넷	인터넷미디어학과
사진	사진영상학과, 사진공학과, 사진학과
영화	연극영화과, 영화방송학과, 영화영상학과, 영화제작학과, 디지털영화제작학과, 연출이론학과, 영화예술학과
교육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민간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로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검정 주체

NIE 강사의 민간자격을 검정하고 인증해 주는 주체는 국가 공인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갖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가 신뢰하는 자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법정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NIE 강사가 NIE 교육 활성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을 획득한 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적합하다. 다만 앞서 NIE 강사 민간자격 부여 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지적한 교육기관 인증기관의 분리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NIE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더구나 자격 검정을 위하여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놓을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보다 더 공신력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언론진흥재단이 NIE 강사 민간자격 검정의 주체가 될 경우 교육기관과 검정기관이 하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정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앞서 우려한 것처럼 교육사업을 위해 검정체계를 활용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검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교육과 검정 간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래에 ‘NIE 강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NIE 교육 또는 미디어 교육을 시행해 온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도 NIE 강사 민간자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NIE 강사 민간자격 검증에 있어서 자신들이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창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NIE 강사 자격 획득에 대한 기준을 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검정하는 시험 과목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과 이수 과목과 시간을 정함으로써 공통된 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최종적으로 자격 응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당 공인 교재를 발간함으로써 다른 자격 검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여러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사회적 보상체계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재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3) 검정의 절차

NIE 강사에 대한 검정은 크게 ①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수, ②응시 자격 획득, ③검정 시험의 평가와 합격, ④자격증 발급 ⑤자격 재갱신 등의 절차를 갖도록 한다. 먼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NIE 강사로서 사회가 신뢰할만한 자격과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교육 일반, 미디어 일반 그리고 NIE 교육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한다. 각각의 이수 과목 시수는 3:3:4로 구성하도록 한다. 전체 교육 이수 시간은 300시간으로 하며 이는 일반인이 주말 4시간 이상 한달 32시간 최소 6개월 이수해야 획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고려한 것이다. 지나치게 짧은 이수 시간을 설정하면 사회가 인정하는 공신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부여하면 NIE 강사로서 우수한 예비인력인 교사 또는 미디어 및 언론 현업인의 유입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 검정을 위한 시험 방식은 크게 필기와 실기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1차 필기 시험은 최소한 지식을 평가는 것이며 실기는 실제로 NIE 강의를 진행할 때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실기에는 신문을 활용한 교수법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문 제작과 영상물 활용 능력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은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민간자격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총 300시간이고 약 6개월 소요된다는 점에서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1차 필기 시험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자를 가려낸다는 점에서 과목별 과락 기준은 없애고 전체 평균 80점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실기는 몇 가지 실기 항목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를 하되 특정 실기 영역에서 과락 기준을 정해 모든 부분에서 능력을 갖춘자가 자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6〉 검정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면제 조건

시험 일정	주요 내용	이수 시간	면제
교육 일반	교육철학 교수법 아동심리	90시간	교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60시간 면제 교사자격 소지자 전체 면제
미디어 교육 일반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 제작과 실습	90시간	미디어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60시간 면제 미디어/언론인 종사자 전체 면제
NIE 전문	신문활용 교수법 신문과 리터러시 신문/미디어와 사회참여	120시간	NIE 및 미디어 교육 종사자는 60시간 면제

시험을 통해 자격 합격을 정하는 기준은 시험 과목이 정해지면 최소한 몇 번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적합하고 일관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실기의 경우 어떠한 소양과 능력을 실제 활동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시험 과목과 기준, 평가의 방법 등은 사전에 6개월 이전에 공표되어 응시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격증의 발급은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주 이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은 최소 3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자격이 아닌만큼 지속적인 자격의 실효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격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있는 민간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획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갱신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자격 검정주체가 그 사항과 인력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사회적 보상과 사후관리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마다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자격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NIE 강사 자격 유지를 위해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그 능력과 자격이 사회내에서 공신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격증 갱신의 방법은 갱신기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입증 서류(수료증) 및 기존 자격증 제출(NIE강사 자격검정위원회)을 의무화해야 한다. 자격증 갱신에 대한 심사는 보수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자격을 받은 3년 동안의 활동과 자격 상실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했는가를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자격 상실과 정지에 대한 조건은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위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당 자격을 재갱신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NIE 강사로서 사회적 공신력을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보수교육은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서 수료가 되어야 보수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보상체계를 위해서는 자격검정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속적으로 NIE 강사를 활용하여 NIE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NIE 활성화를 통해 NIE 강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NIE 교육이 제도 교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격을 획득한 자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보상체계를 확보하고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를 지속 관리하고 이들에게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NIE 강사가 필요한 기관 또는 업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확보해야 한다. 기타 NIE 강사를 학교 교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NIE 강사를 활용한 NIE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석 외 공역. (2005).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설계*. 아카데미프레스.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구정화(2009). 『자녀와 함께 하는 NIE: 학부모 NIE 워크북』. 한국신문협회
- 김기태(2008), “한국 미디어교육 현황 및 발전 과제 - 미디어교육위원회 활동 사례 평가 및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pp. 57-72.
- (2005), “초·중등 학교 미디어교육 목표 및 방향 설정”,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pp. 403-411.
- 김기태·권혁남·김양은(2007). NIE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및 효과 검증, 신문발전위원회.
- 김기태·문혜성(2004), “한국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태 및 특성”,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pp. 19-45.
- 김광호(2002),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방안 - 미디어교육의 공 교육제도화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pp. 39-54.
- 김경자(2000). 『학교교육과정론』. 교육과학사.
- 김기태(2004). 『시청자 주권과 시청자 운동』. 한나래.
- 김기현·김지연·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9-R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장근영(2010).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대희(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제28권, pp. 209-238.
- 김상호·박종진·김상진(2010), 『자격의 경제적 효과(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양은(2004), “교육 환경 변화와 미디어교육의 과제”, 『중등교육연구』제52권 2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등교육연구소, pp. 541-560.
- (2005),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 언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제27권, pp. 427-450.
- (2005), “범교과 및 독립교과 미디어교육 교과과정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pp. 429-435.
- 김양은·안정임(2004), “미디어교육의 개념 및 학교 미디어교육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pp. 1-17.
- 김영만(2006), 매체를 활용한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신문 사설칼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 최상희, 심옥령, 김지영(2010). 『초등학교 신문활용교육의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순(2005), 『미디어와 문화교육: 미디어 읽기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2005), “사회과 미디어교육 교과과정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pp. 437-445.
- (2005), “중등 사회과 미디어교육 교과과정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pp. 137-152.
- 김영순·김기태·김양은·정희경·최웅환·임성호·강진숙·이희복·최상희(2006), 『미디어 교육과 교과과정』,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용술(2006)은 “신문 활용 교육(NIE)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김영순·최상희·심옥령·김진영(2010), 『초등학교 신문활용교육의 실제』, 한국문화사.
- 김영순·최상희·심옥령(2008). 신문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신문자료 활용 학습 캘린더’ 및 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신문보도 매뉴얼 ‘개발연구, 신문발전위원회.

- 김종서 · 이영덕 · 황정규 · 이홍우(199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김주희(2008)는 “NIE 활용의 긍정적·부정적 요인에 대한 과학과 교사들의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택환 외(1999), 『미디어교육 이해와 실천 - 미디어교육 현황과 언론인활용방안 연구』, 한국언론재단.
- 권성호(199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제13권 2호, pp. 3-30.
- 김훈순(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25), 『청소년과 인쇄매체』, 한국언론연구원
- 류한호(2002). 『교육현장에서 NIE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2002 NIE 대회 발제문.
- 박도순 · 홍후조(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문음사.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2010). 『더불어 사는 삶, 미래를 여는 힘: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 서태열 외(2009),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 의사소통능력 중심으로』, 한국신문협회
- 설규주 · 이두희 · 김명정(근간). 『신문활용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설진아(2007), 『미디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소경희(2004), “7차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과교육연구』 제25권 1호,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 pp. 59-82.
- 송용희(2006), NIE 실태와 인지된 효과, 2006 한국의 NIE, 한국언론재단
- 안정임·전경란(2003), 『미디어교육 교재와 커리큘럼의 방향』, 한국언론재단 2004-02.
- 신문발전위원회(2007), 『NIE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및 효과 검증』연구보고서
- 박미영(2005)은 “NIE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NIE 실천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석규(2004),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

- 구』제10권 1호, pp. 65-90.
- 박재승(1999), “신문활용교육(NIE)의 문제점 고찰”, 『인문 학지』 제17권 1호,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03-126.
- 박종성(2010), “민간자격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 『The HDR Review』, 제13권 3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정임(2007).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편, 『미디어의 활용』,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안정임 · 전경란(1999). 『미디어교육의 이해』. 한나래.
- 오택섭 외(2006), 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 옥성일(2003), “교육 현장에서의 미디어교육”,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pp. 85-93.
- 우한용 외(2003),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영진 외(2005). 『신문 읽기 세상 읽기: 100% 활용하기』. 대한교과서
- 이문남, 문지원(1999), “지구과학전공 과학교사들의 과학과 NIE프로그램과 학습자료로서의 신문의 특성에 대한 인식 조사”, 『교과교육연구』, 3호, pp. 91-112.
- 원용진 외(2003),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언론재단.
- 이기찬(2004), 중앙일보 NIE 이렇습니다. 제8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발제집.
- 이미영 · 김담희 · 김성태(2010). 청소년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pp. 82~106.
- 이상현(2009). 진학정보 그늘에 가린 NIE면, 조선·중앙·서울은 고정면 운영-NIE 관련 지면과 프로그램 현황. 『신문과 방송』, 2009년 6월호.
- 이성진 · 윤경희 · 임진영 · 임은미 · 여태철 · 황매향 · 김인규(2007). 초 · 중 · 고등학생의 지적 발달과업 탐색. 『아동교육』, 16, pp. 21~32.
- 이재분 · 현주 · 류덕엽 · 조성인(2002). 『초 · 중학생의 지적 ·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Ⅲ)』. 연구보고 RR 2002-4.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균(2009). 도서관과 결합한 한국적 NIE 외국에 뒤지지 않아 - 국내외 NIE 우수사례. 『신문과 방송』, 2009년 6월호.
- 이태종(2006). 『NIE 원론 1, 2』. 통키.

- 이혜령·박형준(2007), “사회과 교사의 NIE 활용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 『시민교육연구』, 제39권 2호, pp. 159-180.
-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2006). NIE 실태조사,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
- 정대필(2009). 월1회, 2개·3개 신문 활용 학생 눈높이에 맞춘 기사 필요 - 전국 NIE 교사 설문조사. 『신문과 방송』2009년 6월호.
- 정문성(2006). 한국 신문의 신문활용교육 현황과 활성화방안. 2006 전국 NIE 대회.
- 정문성 외(2007), NIE 수업모델 알아보기: 중등 국어 초등 사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2008), “학교급 및 수업방법에 따른 사회과 NIE에 대한 초, 중등학생의 인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제40권 2호, pp. 191-221.
- 정문성(2009), 『홈스쿨 NIE 학습법』, 파인앤 굿 엔터테인먼트
- 정문성(2010), NIE 산학협력 포럼 방안을 위한 제언, NIE 산학협력포럼
- 정문성(2011), 『신문 활용 교육(NIE)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2010 대한민국 NIE 대회 발제문
- 정문성·구정화(2005). 『학생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 정보통신부·한국 인터넷 진흥원(2008). 2007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 정연실(2002), 『미디어교육 길라잡이』, 한국언론재단.
- 정현선(2004),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pp. 5-42.
- 정현선, 안정임, 김기태, 전경란, 조연하, 김양은(2009). "한국 미디어 교육의 역사와 정책, 그리고 실천", 『미디어교육연구』, 1, pp. 103~134. 한국전파진흥원.
- (2007), 『미디어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미디어 분석과 자아 표현, 기능 훈련의 사례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용철·김덕모(2002), 『청소년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2 지식기반확충 조사연구.
- 조정윤 외(2010),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상희(2003), 『NIE의 이해와 활용 - 신문활용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상희·오주석(1999). 『NIE 지도전략』. 대일.

최인재 · 임지연 · 김형주(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상희a(2009), 고등학교 사회과수업에서 신문자료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인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상희b(2009). 신문사 NIE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학교 NIE와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며. 한국신문협회, 『2009 신문사 NIE 기자 워크숍, 신문사
NIE 현황과 발전방향』. 2009. 11. 19~20.

한국신문협회(2004), 『학교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2005), 『학생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2005). 『NIE 가이드북』.

한국언론진흥재단(2006), 『2006 한국의 NIE: 실태진단, 커리큘럼, 전문인력
운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신문협회(2007), 『NIE 수업모델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2009),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의사소통능
력을 중심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2010). 『신문활용 교육의 이해와 실천: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용 NIE 가이드』.

한국신문협회(2010), 『대학생 글쓰기 가이드』

한국언론재단(2008), 미디어교육 교사연수(중등) 자료집,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2008), 미디어교육 교사연수(초등) 자료집,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2008), 중등 NIE 교사 연수 자료집,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2008), 초등 NIE 교사 연수 자료집,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한국신문의 미래 전략: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위하여』,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5), 『학교로 간 미디어』, 다홍미디어.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7), 미디어의 이해-미디어교육 종합자료
집 1, 방송위원회.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7), 미디어의 활용-미디어교육 종합자료
집 2, 방송위원회.

허병두(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 NIE의 이해와 실제』, 중앙M&B.

황치성(2007), NIE 메카로 떠오른 핀란드, 월간 신문과방송 2월호.

허병두(2010) 신문읽기문화진흥, 『<신문과 방송』4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Anderson, L. W., & Krathwohl, D. R. (Eds.)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Allyn & Bacon.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D. McKay
Co., Inc.

Buckingham David(2004), 『미디어 교육』, 기선정·김아미 역, jNBook.

Burns, W.S. (1991). The Newspaper in Education Program. Ed.D.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Curriculum Corporation(2005). Statements of Learning for English.

English and Media Centre(2006). Doing News.

Inside Washington Post: An Integrated Curriculum Resource
Program(2009).

Jenkins, H. (2006).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MacArthur Foundation(안정임

(2010) '미디어교육 해외전문서적 동향', 『미디어교육연구』통권 제 2호,
한국전파진흥원).

New York Times Careful Reader(2010)

New York Times Checks and Balances(2010)

New York Times Current Knowledge(2010)

New York Times Curtains Up(2010)

New York Times Elementary Enrichment(2010)

New York Times Geography(2010)

New York Times Grammar Rules(2010)

New York Times Human Rights in History and Today(2010)

New York Times Literacy Skills Across the Curriculum(2010)

New York Times Writing Skills(2010)

OCR(2009). GCSE in Media Studies J526.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2007a). Citizenship: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 3 and Attainment Target(an extract from The National Curriculum 2007).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2007b). English: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 3 and Attainment Target(an extract from The National Curriculum 2007).

Quin, R., McMahon, B. & Quin, R. (1995). Teaching Viewing and Visual Texts.

Curriculum Corporation.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Vincens, J. & Landsforbund, N. A. (1990). World Survey on Newspaper in Education(NIE) Programs, FIEJ, June 1990 (김훈순,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인쇄 매체』(연구서 25권), 한국언론연구원 총서, 1994에서 재인용).

한국신문협회 www.presskorea.or.kr

한국신문협회 NIE과정 <http://kan.teacherville.co.kr>

한국NIE협회 www.e-nie.com

한국언론진흥재단 NIE학교 <http://enie.kpf.or.kr>

이태종 NIE 논술연구소 www.niefather.com

미래NIE논술연구소 <http://niann.cafe24.com>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www.hanuricampus.com

벅스북 www.bugsbook.com

조선일보 NIE <http://nie.chosun.com>

중앙일보 에듀라인 www.jnie.co.kr
소년한국일보 <http://kids.hankooki.com>
강원일보 www.kwnews.co.kr
어린이 강원일보 www.kidkangwon.co.kr
전북일보 www.jjan.kr/Nie
전북도민일보 www.domin.co.kr
경남신문 www.knnews.co.kr
<http://www.pressnet.or.jp>
<http://nie.jp/info/index.html>
<http://newspark.jp/newspark>
<http://newspark.jp/foundation>
<http://newspark.jp/library/index.html>

<부록 1 설문지>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 연구 관련 전문가설문지

먼저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는 NIE 강사의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의 검토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NIE 및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NIE 강사/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격제도 체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설문 대상자가 개별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께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소시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 연구의 책임자 김경환(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010-4767-1434, kimkw-10@sangji.ac.kr) 또는 박한철(덕성여자고등학교, 010-2054-0692, qfocus@daum.net)에게 연락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설문에 협조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사)미디어전략연구소

1. 귀하께서는 국가 공인의 NIE 강사/지도사(이하, 강사로 통일)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자격제도가 갖춰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현재 NIE협회, 신문사, 시민단체, 사설 학습기관 등이 NIE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들 민간 NIE 강사 자격증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p>긍정적인 부분</p>	
<p>부정적인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p>	

☞ 다음 장에서 계속

3. 국가 공인 NIE 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고 할 때, 귀하께서는 자격제도에 필요한 아래의 각 단계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계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자격 부여의 주체와 지원/획득의 대상	
② 검정요소 (평가과목 및 직무능력)	
③ 평가체계 (출제방식/채점/취득기준)	
④ 교육훈련 (연수/양성과정)	
⑤ 사후관리 (추가교육/자격갱신/경력개발)	
⑥ 기타	

4. 귀하께서는 공인 NIE 강사 자격제도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교사 및 언론인에 국한하거나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교사 및 언론인에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경우, 교사 및 언론인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공인 NIE 강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 아래의 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시오.

영역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정
교육과정 명칭/개요	(NIE 학교교육과, 미디어교육 등을 모두 고려한 교육과정의 주요 속성에 대해 기술, 질문 6번을 참조)
교육과정 목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NIE 학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지식, 기능, 가치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 가능)
교육내용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술)
평가	(교육과정에 대한 달성 수준을 향후에 검정하고자 할 때 평가의 방향, 기준 그리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6. 귀하께서는 공인 NIE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커리큘럼으로 **가장 적합한 과목**을 아래에서 각 분야에서 **5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분야	커리큘럼 과목	3가지 선택
1) 신문활용 교육으로서 NIE분야 (학습에서의 활용)	① NIE 이해, ② NIE 강사/지도사 역할 ③ NIE 활용과 교육 방법, ④ NIE 효과 ⑤ NIE 독서활동, ⑥ NIE 글쓰기(바른 문장과 문법 쓰기) ⑦ NIE 논술, ⑧ NIE와 유아교육 ⑨ 영역별 NIE 심화 학습(사회탐구, 수리, 과학 등) ⑩ 학제별 NIE 심화 학습(초, 중, 고 등)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2)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서 NIE 분야 (민주주의에서의 미디어/신문 활용)	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②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③ 미디어로서의 신문(신문과 다른 매체의 관계 포함) ④ 신문으로 읽는 세상(신문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⑤ 신문으로 표현하는 세상(신문제작을 통한 자기표현) ⑥ 신문과 산업(광고/상업성) ⑦ 디지털시대의 신문 ⑧ 신문과 저널리즘 ⑨ 신문과 윤리 ⑩ 신문과 여론 ⑪ 인터넷에서 정보 획득과 생산 ⑫ 영상 제작의 실제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인 NIE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커리큘럼으로서 위의 표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적시해 주십시오.

<p>신문활용 교육으로서 NIE분야(학습에서의 활용)</p>	
<p>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서의 NIE 분야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신문 활용)</p>	

7. 귀하께서는 공인 NIE 강사 자격검정을 위한 시험에서 실기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하시는 실기 과목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 장에서 계속

8. 귀하께서는 공인 NIE 강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최소한의 조건
①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 등의 학력 중에서 최소한 갖춰야 할 학력 수준을 제시)
② 적정 교육/훈련기관	(대학과 대학원에 별도 전문전공을 획득해야 하는지, 획득해야 한다면 어떠한 전문전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학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한다면 어떠한 기관이 적합한지 등과 관련하여 기술)
③ 교육/훈련 기간	(적정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최소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 즉, 전문과목 최소 이수학점 또는 최소 이수기간 등을 제시)
④ 견습기간	(교육 이후 취업에 이르렀을 때 견습기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기술)
⑤ 경력조건	(교사, 언론인과 같은 경력의 제약조건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지에 대해 기술)
⑥ 적성	(NIE 강사로서 요구되는 적성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 최소 5개 이상 선정하여 자세히 기술)

9. 귀하께서는 직업으로서 NIE 강사가 정착되기 위한 양성기관과 취업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최소한의 조건
① 양성기관	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초대, 대학, 대학원 이상의 전문전공 분야)
	훈련	(훈련기관으로서 적절한 민관기관과 공공기관, 이들 양성기관의 인증기준 등)
② 취업경로		(교사로서 취업과 그냥 일반 직업인으로서 취업을 구분하여 그 경로를 간략히 기술)
③ 채용방법		(교사의 채용과 일반 직업인으로 채용 방법을 구분하여 기술)
④ 직업활동 영역		(NIE 강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활동 영역을 최소 3개 이상 선정하여 자세히 기술)
⑥ 경력개발 단계 또는 활용 분야		(NIE 강사로서 승진과 같은 단계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NIE 강사가 됨으로써 다른 직무에서 승진 또는 추가 경력개발이 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기술)

10. 귀하께서는 국가가 NIE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NIE 강사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지원 사업과 진흥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